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끄럼 없이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2017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2월 24일 (토) 제 161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다사다난했던 2016년... '트럼프 당선' 이 탑 뉴스

RNA, '2016년 10대 종교 뉴스 선정'

2016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Person of the Year)은 도널드 트럼프다. 타임지는 이어 트럼프를 "분열된 미국의 대통령" (President of the Divided States of America)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내 종교 전문 기자들의 연합체인 RNA(Religious Newswriters Association, RNA.org) 역시 트럼프 당선을 2016년 올해의 탑 뉴스로 선정했다(Trump's election voted No. 1 religion story of 2016; Khizr & Ghazala Khan selected as top newsmakers). 그러나 RNA는 트럼프를 당선시킨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행보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바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무슬림이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일종의 혐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반 트럼프 시위들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후유증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인물이나 뉴스 메이커로 자리매김한 프란시스 교황은 4위로 밀려났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이 몰고 온 쓰나미는 엄청난 위력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 에 백인 복음주의자들 지지 절대적

1. 도널드 트럼프 당선!

정치적 아웃사이더이자, 도덕적으로나 기업 윤리에서도 어긋난 문제의 대선 후보, 트럼프 당선에는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다. 그동안 소외됐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또는 새롭게 등장한 '대안 우파(alt-right)'의 득세 등등 무슬림과 불법 이민자 배척에 한 목소리를 내어서 승리하게 됐다든 염려담긴 분석도 있다. 그러나 낙태나 불법 이민 그리고 총기 규제와 연방 현재 대법관 임명이 보수 성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기에, 예상과는 달리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과반수이상 장악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간 동안 진보 성향으로 신뢰한 미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동일한 맥락에서, RNA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육군 대위(Humayun Khan)의 부모(Khizr and Ghazala Khan)를 2016년 '올해의 뉴스메이커'로 선정했다. 칸 대위의 부모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공약을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2. 트럼프 당선이후 혐오 범죄 증가

트럼프 당선이후 무슬림들과 다른 소수 그룹들을 겨냥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태

러들과 반달리즘이 증가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바로 이러한 폭력들에 대한 승인이란 주장할 정도다.

3. 시오스 원주민들의 송유관 설치 반대 시위

노스다코타 주 원주민인 시오스 부족들이 다코타 송유관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바로 청정 자원인 물과 신선한 땅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미 전

역에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했다.

4. 프란시스 교황, 이혼/재혼에 대한 사목 강령 촉구

항상 분주한 프란시스 교황은 사도적 훈계(Amoris Laetitia)를 통해 카톨릭교회 안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선포했다.

(3면으로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며 꿈꾼다!

리더십저널, 페리미터교회 랜디 포프 목사의 선교적 제자도 정착위한 제언 소개

랜디 포프(Randy Pope) 목사는 조지아 주 둘루스(Duluth) 시에 있는 페리미터교회의 담임목사다. 그는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애틀랜타 지역에 23개 교회를 개척했고, 페리미터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타 교회들과도 연합해 매년 애틀랜타의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는 캠퍼스 선교(Campus Outreach)와 C.C.C. 집회의 강사로도 자주 활동했으며, 불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 세계남자테니스협회(ATP)에서 선수들을 위한 지도목사로 10년간 사역하기도 했다. 그리스의 제자를 훈련시키려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애틀랜타신학교(Atlanta Seminary)와 페리미터기독교학교(Perimeter Christian Schools)가 설립됐다.

그는 목회자가 선교적 제자도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 현황을 평가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정말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창조적

는 성숙하고 무장된 그리스의 제자를 만드는 데 탁월합니까? 우리 소그룹은 사람들의 영성 형성을 정말 돕고 있습니까? 우리의 리더십 풀은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간 위축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철저하

"그 꿈이 가능한지 여부는 묻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물어라"

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창조성을 더 많이 갖춘 사람도 있다. 나의 관찰 결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책 읽는 사람도 아니고 책 읽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읽기보다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어쨌든 책 읽지 않는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하듯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당신의 생각 첫 부분을, 당신 자신과 교회 사역을 평가하는 시간에 할애하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대답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

게 평가했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파악하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지 계획할 때다.

2. 기도하며 꿈꾸라

이것은 어려운 단계는 정말 아니다. 단지 처음의 연장이다. 계속 생각 중이겠지만 당신은 이제 마음에 올바른 꿈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나는 앞서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영된 비전이라고 적었다. 이 꿈은 여러 차례 변화하면서 선행해진다. 이 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2016, 올해의 단어 "제노포비아"'



5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킴 사모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본지가 보도한 2016년 한인교계 10대 뉴스

은혜 이슬 새벽부흥회

"성경으로 돌아가자"



1/2(월) 5:20am
강사: 한기홍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3(화) 5:20am
강사: 최규남목사 (GMU 총장)



1/4(수) 5:20am
강사: 최홍주목사 (에브리데이교회 담임)



1/5(목) 5:20am
강사: 심창섭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 담임)



1/6(금) 5:20am
강사: 양춘길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담임)



1/7(토) 6:00am
강사: 김춘근장로 (GLDI 대표)

일시: 2017. 1.2(월)~6(금)/5:20am, 7(토)/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주말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침례 8:00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한기홍 담임목사 선교방송		
KSCB CH 18.1	오전 08:00(주 일)	
TIMEWARNER CH 18	오전 08:00(주 일)	
LA 지역 케이블 방송 CH 18	오전 08:00(주 일)	
DIRECT TV CH 18	오전 08:00(주 일)	
DISHNETWORK CH 6017	오전 08:00(주 일)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0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CGTV LA 지역	오후 2:30(월요일)	
SAN DIEGO RADIO SEUL AM 1450	오전 6:00(월요일)	
크리스천 메트로 방송 AM 1660	오전 06: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00	오전 10:20(수요일)	
CIS 미국지역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후 1:30 (5:30, 9:3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00	오전 11:00(금요일)	
CIS 미국지역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IS 한국(교)	오전 05:00(한국시간)	

다사다난했던 2016년... '트럼프 당선' 이 탑 뉴스

(1면에서 계속)

이혼을 불허하는 카톨릭 전통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어,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대치되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미사를 드려 불법 이민자들을 격려했고, 트럼프의 장벽 설치에 비기독교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5. 난민들의 해상 사망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밀항을 감행한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 난파돼 최소한 4,600명이 사망했다. 계속되는 난민 문제로, 유럽 각국에서는 반이민 정서와 함께 극우 정당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난민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6. IS 연계 또는 영향 받은 테러 공격들

유럽 전 지역, 이스탄불 공항 그리고 브르셀, 독일 도시들에서 IS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대부분 유럽 사회에 부적응한 젊은 무슬림들의 테러들이 감행돼 수십 명의 인명이 사상됐다. 그리고 프랑스 니스에서는 연휴를 맞아 시내에 구경 나온 군중을 향해 트럭으로 돌진해 86명이 사망했다.

7. 백인크리스천의 종말(?) 그러나 대선에는 결정적 기여



이미 통계를 넘어 학술적으로도 미국에서 백인 크리스천의 종말이 도래했고 세속주의가 더욱 성행되고 있다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반면에, 좌익 성향의 종교적 '넌스'는 민주당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8. 흑백갈등으로 인한 충격전들

경찰들에 의한 흑인들 겨냥한 충격전 빈도 증가로 "#블랙라이브스매터스" 시위에 많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대거 참여했다. 동시에,

경찰들의 충격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커뮤니티 위로와 화합에 성직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9. 복음주의 진영 역시 이견 대립 중

2016 대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대거 투표했지만, 복음주의 진영 리더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보수적인 정책들이 부활되고, 연방대법원 대법관 지명 역시 보수주의자들의 선장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미 증명된 트럼프의 도덕적 무책임과 기업 윤리상 일탈행위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이나 언급들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 올랜도 게이바 테러 사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게이바(Pulse)에서 IS에 충성을 맹세한 오마르 매틴은 총격을 통해 49명을 죽였고, 53명을 부상시켰다. 오마르 마틴처럼 자생적 늑대로 자라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가 미네소타 대형 쇼핑몰에서 자행돼 수십 명이 부상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뉴욕시가 이들의 테러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RNA는 11)연방대법관 안도닌 스칼리아의 돌연한 사망, 12)주법으로 금지된 성전환자들의 인권이 다시 한번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장, 13)2015년 찰스턴 흑인교회 총격테러범, 달란 루프의 재판 시작, 14)연방대법원의 오바마 행정부의 종교 단체 학원들이나 자선기관들 고용인에 대한 피임 보장 명령에 대한 유예 명령, 15)주류교단 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논란: UMC 총회 연구 안건으로 상정, 영국성공회의 미성공회 리더십 임직 3년 유예, 16)연합군의 IS의 시리아, 이라크 점령지 재탈환, 17)시리아 아사드 정권 러시아 지원으로 반군 수니파 저항으로 내전 심화, 18)종교적, 장애복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중환자를 대상으로 안락사 허용(플로리다, 캐나다), 19)78년 이후, 갈라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지도자들의 회합 증가, 20)세계 인권보호 기관들, 버마 미얀마 불교도 주도 행정부의 무슬림 소수 세력인 로힝가 부족 공격 비난 등등을 20대 종교 뉴스들로 선정했다.

소망 칼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다(요 15:13-15). 그것은 제자들을 좋아하진 친구로 대하신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 친구는 가장 가깝고 친한 사이를 표현하는 호칭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 18:24).

교회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인들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은 자기 생애를 바칠만한 큰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들의 앞길을 가르쳐 준 스승이 있었다는 점이다. 나 자신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나보다 먼저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걸으며 갈 길을 지시해 준다면 정말 행운이다. 셋째는 그들에게는 최소한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했다.

우리에겐은 언제나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과 시련, 환난의 때에도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으니 우리도 서로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과 그의 관 계에서 잠깐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 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은 "친절"이다. 친구 간에는 언제나 친절이 있다. 친구가 없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친절을 베푸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대하기 바란다. 친절의 씨를 뿌리면 우정이라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친구 간에 우정을 쌓으려면 다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①말을 주의해야 한다.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싸움이 된다. 거친 말은 평생을 허물 수 있다. 쌀쌀맞고 쓴 말은 미움을 산다. 욕설 한마디가 죽음을 낳을 수 있다. 친절할 말, 사랑스러운 말이 곧 축복이다. ②우리 교인들끼리는 부드럽고 명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드러움은 일을 성취시키고, 명랑함은 햇볕을 불러들인다고 하였다. ③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친절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친절의 기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났을 때 얼른 실천해야 한다.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은 부자가 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친구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 없이 진정한 우정이 전달되기는 힘들다. 죽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모든 초목의 대 법칙이다. 그와 같이 자기를 내 놓는 희생은 모든 역사 발전의 대 원칙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버려서 얻는 열매이다.

친구 간에는 무엇보다 우정을 지켜야 한다. 친구와 우정은 자주 만나야 계속 두터워지듯, 예수님과 그의 우정도 계속 기도로 대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실천하는데서 더욱 돈독해 진다. 친구 간에 결점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다고 했다. 친구 간에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끼리는 예의를 안 지켜도 괜찮은 줄 아는 이가 많다. 그러나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일본 격언에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라"는 말이 있다.

궁핍할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우리는 모두 친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친구 중에 친구이다. 친구 간에는 우정이 있어야 하고 우정을 쌓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친구를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

nammicj@hanmail.net

현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며 꿈꾼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당신의 꿈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에게는 꿈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허룻 밤 사이에 등장하지 않는다. 내 경

험을 돌아보면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며 보내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꿈이나 비전을 그분께 구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 꿈이 가

능한지 여부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간다. 물론 나는 내가 적는 모든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건 아니라는 것을 알만큼은 성숙하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 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제 2016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의 뜻을 불살라주셔서,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믿을 만큼 강한 확신, 설득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다.

'2016, 올해의 단어 "제노포비아"

(2면에서 계속)

'Xenophobia'와 'otherness' 두 단어는 종종 한데 묶여 소개되거나 차이가 비교되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원도 역사적인 용례도 뚜렷이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Xenophobia'의 어원에는 정서적인 두려움이란 뜻이 분명히 있지만 'otherness'에 나타나는 차이는 사회적 정체성 혹은 양태의 차이로 감정적인 반응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의미를 놓고 보면 'Xenophobia'와 더 잘 어울리는 한 쌍은 '레이시즘(racism)', 즉 인종차별주의이다. 두 가지가 뜻하는 바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의 기저에는 나와 다른 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로 인한 증오와 배척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상황을 거칠게 요약하면 "난 네가 싫어. 넌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정도의 사고에 해당한다.

기술 분야에서 'Xenophobia'와 비견할 만한 단어가 생겨났다. 곧 디스너리닷컴에도 등재할 예정인 '언캐니 벨리(uncanny valley)'라는 단어로, 인간과 비슷해 보이는 로봇,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신기술을 접할 때 생기는 불안함이나 두려움, 나아가 혐오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은 곧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사물에서 나타나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것에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Xenophobia'의 반응 기제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름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다른 양식의 문화, 다른 방식의 삶에 더 많이 노출하고 부딪쳐 다름을 불편하고 낯설게 여기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면 'Xenophobia'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다른 이의 삶을 이해하면 다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공감과 이해가 깎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는 어떤 단어에 대한 검색량이 언제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만 알려줄 뿐 구체적으로 왜 그 단어와 주제에 관심이 쏠렸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Xenophobia'라는 단어가 자체가 낯설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검색한 이용자도

있었을 것이고, 정확한 철자나 발음을 확인하려고 찾아본 이용자가 있을 것이다. 많은 이용자들은 원래 알고 있던 뜻이 맞는지 혹은 좀 더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자 이 단어를 검색해봤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리고 공유하고자 검색을 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전 세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정치적인 수사가 복합적으로 'Xenophobia'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긴 했지만, 이 단어가 사실 촉박할 만한 긍정적인 뜻을 담은 단어는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되새겨보게 하는 단어로 고 할 수 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깔끔하게 용서합시다

소설이나 연극, 영화 같은 작품은 그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희극이다. 착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으면 비극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마지막에 가서 해피하게 끝나면 희극이 된다.

성대통령에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지금은 탄핵을 받는 서글픈 인생의 마지막 막을 맞고 있다. 문제는 마지막이다. 중요한 것은 지난 날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의해서 그 생애가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갔다 다시 나와 노예로 팔려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을 당하는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 했다가 노예로 팔려 가는가 하면 노예로 팔려가서도 진실 성실하게 산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1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했으니 말이 될 일인가?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면 복수를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뒤 그 장면을 보여준다. 형들이 돌아와서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 형들을 용서해주라고 유연하셨으니 그 아버지를 생각해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이라며 무릎을 꿇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용서해준다.

도 지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싸우고 불화로 이어지게 된다. 용서하겠으면 지난날을 깨끗이 백지로 돌리고 깔끔하게 용서해주어야 한다. 성경은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해넘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용서하고 넘어가야 한다.

련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평화에서 불화로 변해가는 과정에 그 시작에 용서가 있었다면 아니 깔끔한 용서가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이 깃드는 관계 곧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탄절이 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노래한다. '평화의 왕' 무슨 말인가? 불화한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화하였고 사람과 사람사이가 불화하였지만 불화를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란 말이다.

푸/른/초/장

오세훈 목사 (세계소망교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전 1:9)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날이 그 날 같이 반복되나 사람들은 년, 월, 일, 시를 정하여 때를 분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1)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신8:2). 뒷일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고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는 이 때 꼭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아야 합니다. 불신 시대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 많은 사건 중에서도 생명이 귀중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중심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고 찬양이

통을 당한 일들을 잊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이며 나가야 할 길에 여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입니다. 예수께서 좋은 일을 두고 고통을 잊으라고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요16:21).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해방되어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3) 경험을 나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길은 나의 삶에 있어서 거울이 되고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들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는 것은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므로 지난 삶을 거울로 삼아 책망 받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11: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하면서 믿음으로 복 받은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름을 나열했고 그들을 거울삼아 그렇게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잘 보내고 잘 맞이합시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1. 금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본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였는데 지난날을 잘 보내고 아름답게 청산해야 좋은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שראל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신8:2)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여호와를 잘 섬기며 잘 살게 하려는 귀한 말씀입니다. 2016년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넓고, 깊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켜 보

입술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돌이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고통을 잊어야 합니다(요 16:21) 은혜는 기억하지만 고통은 잊어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고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어둡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과거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관형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웃음이 없고 밝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 아래 있으면서 캄캄한 밤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여러분들도 참 빛 되신

하나가 '상 선 별 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난날들의 일들을 거울로 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고, 저렇게 살았더니 저런 결과가 왔다'는 경험은 미래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주님께 칭찬 받을 일들이 무엇이며, 책망 받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미래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해를 살아가는데도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에는 더욱 더 전진의 해가 되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주님이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십시오(롬14:8).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이 것이로다”(롬14:8)고 고백한 것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세움이 좋겠습니다. (9면으로 계속)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빌라델비아 장로교회가 1981년 2월 창립 이래 35년간 시무해 오신 김경진 담임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저희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캐나다 노회 소속으로, 개혁적 정통 보수신앙의 신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말씀을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 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담임목회자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미국 국가안보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있다!

지난 8년간 이슬람국가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주 또 다시 이란과의 핵협상을 하려다가 이번에는 국회의 반대를 맞이해 더 이상 이란과의 핵거래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가 해왔던 이란과의 핵협상은 주류미디어가 알려주는 사실과는 달리,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미국이 완전히 손해 보는, 마치 깨진 향아리에 물을 붓는 협상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번 이란핵협상을 반대하는 미국의 회나 이란을 잘 아는 장교들의 의견입니다.

사건의 발단

이번에도 오바마가 뽑았던 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를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회에 새로운 이란핵협상을 올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원에서는 더 이상 이란핵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통과시켰고, 지난 12월 8일에는 상원에서까지도 99-0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올린 이란핵협상을 반대하며 온전히 제재(control)하는 것을 국회의 만장일치 투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란 핵 용인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을 반대한 이유는?

매년 그랬지만 특별히 작년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을 위해서 이란에게 자그마치 1,500억불(150billions)씩이나 헌납을 했었다는 사실이 리포트 되었는데, 더 큰 질문은 독실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오바마 정부에게서 받은 1,500억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Ayatollah Ali Khamenei가 제안하기를 그의 지출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국가들을 지지할 것이며, 동시에 이슬람을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테러 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며, 그는 강조하기를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슬람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겠다", "이스라엘처럼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라고까지 거침없이 발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90명의 은퇴한 최고 미군 장교들은 이란 핵협상을 반대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내며 강조하기를, 이 협상을 막지 않으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분명히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지만, 작년의 의회는 안타깝게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대통령/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에 더 많은 보수적인 정치 리더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려 1,500억불씩이나 ISIS 테러에까지 가담됐었는데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핵협상"이라는 명목아래 그들에게 자금



을 준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들은 조사에 의하면 이란이 핵 협상을 한 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테러를 진행시켰고 옹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회에서는 그러한 간과하지 않겠다고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오바마 정부로부터 핵협상 자금을 받고서도 이란은 더 많은 미국인들을 납치하여 볼모로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집단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미사일 시험을 여러 번 실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주 위와 같은 이유들로 결정된 새로운 이란 제재를 거부하겠다고 미국국회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란의 테러에 가까운 위험한 행보에 대한 반응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오히려 이란에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고 미국 항공기까지도 이란이 사도록 도와야한

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보수와 진보주의 정치리더들의 치열한 영적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ISIS 테러의 문제보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가장 큰 문제/이슈"라고 시민들의 의식을 계속 혼돈시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며 더 나아가 진보주의의 정치인들과 손을 잡은 주류미디어가 아직도 시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뉴스들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미국에 속히 진실한 미디어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의회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신



속하게 이란에 관련된 행동을 취할 때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을 용인하려는 노력을 강력히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이슬람 테러단체들과의 심각한 관계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임명인이 제일 먼저 대선 이후에 발표한 것이 바로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잘 알려진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MB))"을 백악관과 미국 안에서 금지(Ban)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http://www.wnd.com/2016/11/trump-gets-tough-looks-to-ban-muslim-brotherhood/?cat_orig=us,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ISIS 테러 단체들과 국가들이 연결이 있다고 이미 온 세계에 알려진 무슬림형제단 리더들을 백악관에 초청할 뿐 아니라, CAIR(역시 ISIS 테러단체와 연결) 단체를 미국 안에 허락하여

달라스나 플로리다에 자리를 잡게 하고, 백악관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초청을 해주는 등, 그동안 백악관과 미 전역(공립학교교육까지)이 이토록 이슬람화 되어지고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만 미국 안에서 생겨난 3번의 ISIS 테러로 인해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무려 63명의 생명이 사망하고, 81명의 시민들이 크게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돈을 받고 있는 진보주의의 주류미디어는 한두번 정도 그런 뉴스를 내보냈을 뿐 거기에 대해 전혀 크게 이슈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바마 정부의 부타이 있었겠지요.

American law enforcement에 의하면 2015년에만 해도 무슬림 난민이나 이민자로 가장하고 들어온 무슬림들 중 31명이 ISIS 테러관련 자들로 밝혀져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민주당)는 그들의 친이슬람 정책을 테러단체라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무슬림형제단이나 CAIR까지도 미국의 안방을 내어주고 이란 핵거래에 무려 1,500억 불씩이나 주는 등 미국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나 시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년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미국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철저한 무슬림 정치인들과 중요자리들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는 자신이 대통령직에 올라오자마자 첫 3년 동안 철저한 무슬림들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철저한 무슬림으로 알려진 Keith Ellison과 Andre Carson이 국회의원으로 최초로 뽑히게 되고, 이들은 성경이 아닌 코란에 손을 얹고 선언을 했으며, 2009년 4월에는 성경이 헌법의 바탕이 된 미국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토안보" 자리에 Arif Ali Khan라는 무슬림을 "국토안보정책 개발보조"인으로 임명하고, 시리아에서 온 철저한 무슬림인 Kareem Shora를 HSAC(국토안보의회 고문)으로 임명을 했고 Hussam Ayloush을 Executive Director of the CAIR(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에 선임했습니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성탄의 계절인데 맥도날드에 들어갔더니 Happy Holiday가 없고 Merry Christmas로 성탄 장식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권명옥 권사

A: 몇년 전 "크리스마스 죽이기"라는 짧은 드라마가 청소년 매거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탄의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정은 크리스마스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산타 혹은 다른 인물로 바꾸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대신에 축제를 하고 소란하고 화려한 Holiday 문화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켜버리자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센터에도 Merry Christmas 대신에 Happy Holiday, 성탄 카드도 90%는 전부 happy Holiday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면 특히 무슬림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카드를 살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인자, 죽임당하신 어린양, 사자로 나타나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미국이 왜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의 눈치를 보나?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아이오와 주 선거 유세에서 "나는 기독교 신자"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피 할러데이(Happy Holidays)'는 집어 치우고 어디에서나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고 인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며 미국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독교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괴짜라는 말을 듣긴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 달도 안되는 성탄의 시즌에 Happy Holiday 라는 문구는 잘 안 보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미국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미지는 주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습은 아기 예수이지만 하나님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3종류로 나옵니다. 첫째가 인자(Son of man) 2)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Lamb) 3)사자(Lion)입니다. 인자란 이미지는 다니엘서와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이미지로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예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재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린양의 이미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린양은 그 모습을 보면 유약해 보이지만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일곱쌍(완전한 권세)과 일곱눈(완전한 지혜)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짓밟고 지상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승리자 예수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지옥의 불못에 던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 (편)입생 수시 모집안내

2017 겨울 학기 인테시브 • 개강 1월 23~2월 4일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며(FAFSA)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베데스다 신학과 온라인 수업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 중 수업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40위까지 발표된 명단에 한인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http://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

1976년, 베데스다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헌신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지원자는 반드시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Master of Divinity(M.Div) 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M.Div. program 과정 중 평점(GPA)3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중 6 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자는 M.Div 과정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규 4년제 대학교 I- 20 발급 TRACS, ABHE, BPPE 인증대학, NCCAA 멤버

입학안내 문의 : 직통 213.327.8095 켄 박 목사 / 목회학 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입학처 TEL : 714-517-1945 모니카 김 / E-mail monicakim@buc.edu
 www.buc.edu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BETHESDA UNIVERSITY

Bethesda University Anaheim Main Campus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TEL : 714-517-1945 FAX : 714-683-1440 EMAIL : monicakim@buc.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하이난(HAINANESE, 한족)



한족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으로 1조 가 넘는 수이다. 약 5백만의 하이난-한족은 하이난 섬에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들은 윈닝(Wanning)이라고 불리는 중국어 방언을 사용한다.

섬은 중국에서 타이완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이 섬은 오랜 동안 중국에 질병을 퍼트리는 전초지로 여겨졌다.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됐지만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980년 후반에 시작된 중국 본토로부터 빠져나온 하이난-한족의 이주로 이 섬은 넘쳐나게 됐고, 거의 1천년 이상 이미 이 섬에 정착하고 있었던 하이난 한-족과 결합했다. 1980년대 이후로 하이난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본주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삶의 모습

하이난의 섬은 한쪽편이 두 개의 산악 줄기로 싸여있고 나머지 편은 낮은 평지다. 뜨거운 열대성 기후로 연간 폭우가 내리고 풍부한 강수량으로 작물들은 계속해서 자란다. 하이난 한족 대부분은 농부들로 주요 작물은 쌀, 설탕, 커피, 차, 고무 등이 있다. 다른 산업으로는 어업과 광업이 있는데 소금, 철, 금, 다른 광물들을 캐낸다.

비록 하이난-한족이 굉장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만 그들의 개인적 삶은 여전히 중국 공산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데, 예로 하이난 한족에게는 한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높은 나태움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하이난 한족의 결혼

은 중매로 이루어진다. 때로 어린 소녀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보내져 그들의 딸처럼 길러지고 그 가족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부모들이 젊은 남녀를 짝을 맺어 결혼 지참금과 신부대를 교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에서 서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결혼 형태를 불문하고 하이난-한족은 엄격하게 족의 결혼 제도를 고수하는데 즉 자신의 친족 밖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법 아래서는 소수민족들 사이의 중매결혼, 결혼 지참금, 신부대와 같은 관습은 금지되었다.

신앙
대부분의 하이난-한족은 고대 중국 민속종교를 따른다. 일부는

불교이고 극히 일부는 종교가 없다. 중국의 민속종교는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는 불교, 유교, 도교적인 요소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덧붙여졌고 조화를 유지하는 사상이 중심이다. 하이난-한족은 매우 미신적이어서 조화를 촉진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점성술을 이용한다.

그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신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조상신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는데 이때 그들에게 적절히 대우해주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귀신들은 그들이 죽은 상태가 됐을 때 마치 화(anger)가 난 사람의 영혼처럼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이 영혼들은 심심하고 번덕스럽다. 특히 그들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덕스러운 삶을 산 사람의 영혼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신들은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퉴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이난 섬에 사는 하이난-한족은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제 번영의 수준을 경험해왔다. 비록 많은 수가 매우 부유하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 게다가 경제 성장이 지난 몇 년간 매우 더디어졌고 이로 인해 이 섬에도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다.

비록 하이난 지역에서의 박해는 중국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만 이 민족 역시 미전도 종족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며 성경은 아직 하이난-한족의 방언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 '예수'와 오디오 테이프는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에베 중 테러당한 이집트 교회 "그러도 용서합니다"

이집트 콥트교회(Coptic Church)는 중요 대신 용서와 사랑을 택했다. 콥트교회 안바 양겔라스 주교는 최근 수도 카이로 교회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와 관련, "우리는 테러범들을 용서했고,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누구를 탓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콥트교회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 분파다.



주일인 지난 11일 카이로 한 콥트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콥트교인 25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피해자는 주로 성인 여성과 어린이였다. 2011년 20여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친 테러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양겔라스 주교는 "법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고통은 가족의 상실일 뿐"이라고 했다.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테러가 종종 발생했지만 콥트 교인들은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양겔라스 주교는 "우리가 (가해자들)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무슬림에게 양갈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콥트교회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와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성경을 실천하고 있다.

콥트교회 수장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타와드로스 2세는 14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테러 사건 이후 우리는 증오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용서가 하나님의 사인(sign)이다. 우리의 심장은 피 흘리고 우리의 눈물은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희망을 찾기 위해 모였다. 이집트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집트 콥트교인은 전체 인구 8000만명 중 약 10%로 극단주의적인 무슬림들의 차별과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 선거인단 270명 공식 확보, 당선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선거인단 538명은 각 주의 의사당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선에서 트럼프는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크게 앞질렀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6시쯤 지지를 얻은 선거인이 270명을 넘어섰다. 일부 주에서 반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당락을 뒤집을 만큼은 되지 않았다. 가령 트럼프가 승리한 텍사스주의 경우 전체 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6명이 트럼프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2명은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나 론 폴 텍사스주 하원의원에 표를 던졌다. 공식 당선 확정 발표는 내년 1월 6일 열리는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을 학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기독교인 학살'



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날 베를린과 터키 앙카라, 스위스 취리히에서도 테러가 속출하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희생자를 애도하며 테러를 규탄했다.

트럼프는 "베를린에서 일어난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위로의 마음과 기도를 전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는 성명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준비하던 무고한 민간인들이 거리에서 살해됐다"며 "이슬람국가(IS)와 다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전 세계적 지하드(성전)의 하나로 기독교 지역사회의 예배공간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지역과 전 세계 네트워크를 지구상에서 뿌리 뽑아야 하며, 이는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파트너와 함께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가 터키 경찰에 저격당한 사건에 관해서는 "대사 살해는 문명화된 사회의 규칙을 어긴 것으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위터에도 "오늘 터키와 스위스, 독일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문명화된 세계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미국 정부도 베를린과 앙카라 테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우리 삶과 사회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베를린과 함께 싸우겠다"는 성명을 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대사가 살해된 앙카라 테러에 대해 "안전하게 자국을 대표해야 할 모든 나라 대사들을 공격한 것과 같다"며 "러시아와 터키가 이 비열한 공격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에서 2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프랑스인들은 모든 유럽을 강타한 비극과 마주한 독일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우리의 테러 척결 의지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크리스마스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베를린에서 니스 테러와 유사한 대형 테러가 발생하자 유럽 각국은 황급히 테러 경계 강화에 나섰다. 특히 스위스는 이날 오후 취리히 이슬람사원 인근에서 과한 총격으로 3명이 중상을 입자 치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 크리스마스 시장의 경계수위를 높였다. 영국도 크리스마스 시장 주변에 경찰 배치를 늘렸다.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까?

대만에서 여성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이 당선된 차이잉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동성결혼 합법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 유명 기독교 블로그에는 '대만에 동성 결혼 합법화가 임박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블로거는 "미국 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전 세계 동성인권 활동가들을 고무시킨 바 있다"며 "현재 대만에서는 이를(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미국의 선례를 따르는 아시아의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기독교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만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인 차이잉원은 기독교인들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9일 대만에서는 동성 결혼 법제화를 요구하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무려 8만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지개 깃발, 무지개 우산을 들고 나와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 의사를 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역시 SNS 영상을 통해 "나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밝혀 동성에 지지자들이 고무됐다.

블로거는 또 "아시아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없지만, 많은 동성애 활동가들은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만 국회도 역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상정되려면 11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57명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5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르단 유명 관광지 테러, 당국 IS 소행 추정

요르단의 유명 관광지에서 총격이 발생해 관광객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19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요르단 중서부 도시 알카라키에서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해 경찰 7명, 캐나다인 관광객 1명, 현지인 2명이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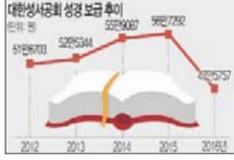
첫 번째 공격은 경찰이 알카라키의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어났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집 안에 숨어 있던 무장괴한들은 총격을 가한 뒤 바로 차를 타고 도주했다. 끈이어 십자군 요새인 카라크성에서 두 번째 공격이 발생했다. 괴한들이 성에 숨어 있다가 경찰과 민간인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요르단 치안 당국은 "성 안에서 무장괴한 4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르단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연합군과 IS 격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카라크성은 요르단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12세기 십자군이 세운 성으로 해발 1000m 언덕 꼭대기에 위치했다. 십자군 요새로는 최대 규모로 전 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다. 요르단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2005년 60여명이 숨진 암만 호텔 연쇄 폭발 테러 이후 11년 만이다.

올들어 국내 성경 보급 왜 감소했나?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가 11일 세계 성서주일(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맞아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내 성경 보급



량이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에 보급된 성경은 47만5757권으로 지난해(56만7292권)에 비해 9만1535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성경보급은 1960년대 63만9053권을 거쳐 70년대 330만8042권으로 급증했고 80년대 1050만1762권, 90년대 1258만8358권, 2000년대 1390만6429권으로 연평균 100만권 이상이 꾸준히 보급됐다. 2011년(86만5938권) 이후 100만권 이하로 줄었고, 올해는 50만권 이하로 떨어졌다.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부총무는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경보급을 거의 독점해온 대한성서공회는 80년대 중반 이후 일반 출판사에 성경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기 시작했다. 메시지성경 등 다양한 형태의 성경이 보급되고 있으나 대한성서공회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성경 보급 기관이다. 2001년 이후 다른 출판사들이 낸 개역개정판 주석성경은 1082만2079권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외성경 보급도 소폭 줄었다. 해외 성경보급은 533만3969권으로 지난해 549만5345권에 비해 2.9%포인트(16만1376권) 감소했다. 2008년부터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성경을 지원해온 대한성서공회는 올해 마다가스카르 등 52개 나라에 53만8442권의 성경을 지원했다. 올해 해외성경보급 후원금은 30억여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억여원 늘어났다.

최초 한글 신·구약 성경, 정식 문화재 됐다

최초의 한글 신·구약 성경인 '예수성고 누가복음전서'와 '구약전서' 등 개신교 유품 4건이 문화재로 정식

등록됐다. 또 서울 용산의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등 3건은 문화재 등록이 예고됐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예수성고 누가복음전서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에서 파송한 존 로스(John Ross·1842~1915) 선교사와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신자인 백용준 이음찬 등이 번역에 동참해 중국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발간됐다. 1882년 3월 24일 간행된 이 성경은 10여권에 달하는 로스 역본(Ross Version) 낱권 성경(쪽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발간됐다.

또 최초의 한국인 일본선교사인 이수정이 1885년 일본에서 국한문으로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도 문화재로 등록됐다. 19세기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인 구약전서의 경우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 관련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단권(신약) 성경의 종합본 격인 '예수성고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로 가치를 지닌다.

이밖에 신앙의 전례화를 기치로 1959년 서울 용산에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와 길이 8m가 넘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좌상당 모자이크 제단화', 1908년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연합 찬송가인 '찬송가(UNION HYMNAL)' 등 3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해병대사령부에서 1959년 건립한 교회당이다. 해병대는 한국전쟁 당시 교회를 창립해 임시 구조물을 지어 사용해 오다가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좌상당 모자이크 제단화는 작품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어 가치가 높다. 찬송가는 악보 없이 가사만 수록돼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인정 받았다. 서양 음악인 찬송을 받아들인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들 3건은 한 달 동안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춧불 복음가' 이어 이번엔 '캐롤 하야송' ?

크리스마스 캐롤의 가사를 바꾼 일명 '하야 캐롤송'으로 공연이 계획되고 참가팀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측은 지난 18일 오후 '12·24 하야 크리스마스 캐롤송 노래 가사 바꾸기 부르기' 신청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래 원곡과 개사곡의 가사 전문, 공연팀 소개 등을 입력해 참가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주최측은 "21일 오전 11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뒤 공연팀을 선정해 같은 날 오후 8시에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공연은 24일 촛불집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지는 게시 3일 만에 1150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공지에 '징글벨'을 개사한 '징글박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개사곡 등이 댓글로 올라와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춧불 복음가'로 명명되며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현 시국에 빗댄 '박근혜와 싸울지라'가 등장했던 것에 이어, 지난 7일 광주시국대회에선 '펠리스 나비다(Feliz Navidad)'를 개사한 '근혜는 아니다'의 개사곡이 무대 공연으로 펼쳐지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캐롤이 개사의 대상이 되면서 기독교계 일각에선 "성스러운 찬송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야 할 크리스마스 캐롤이 개사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기독교 문화사역자는 "개사 현상은 문화적 시위를 위한 위트있는 요소로 봐야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원곡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의미가 훼손된다면 분명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룩한 마음으로 불러야 할 복음성가들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7. 이교담

이교담(1880-1936)은 고종 17년 1880년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한자 이름은 李交淡 그리고 李交 등으로 써진다. 그는 평양 남산현교회 권사였다.

하와이



이교담

하여 '한인감리교선교회'를 조직하고 리버 호텔 스트리트에 예배소를 마련하였다. 그 해 10월에 첫 예배를 드렸으며 이를 인도한 첫 담임 교역자는 흥승하 전도사였다. 1904년 4월 '한인감리교선교회'가 '한인기독교감리교회'로 승격되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 와드만 감독은 이교담을 우병길과 임형주와 함께 '한인기독교감리교회' 산하의 '지방 전도사'로 임명하였다. 이때 그가 24세가 되던 해다. 이교담은 하와이의 각 섬을 두루 다니며



호놀룰루감리교회, 1909년

상항 한인 미미미 미션 홈 권사

1905년 어느 날 이교담은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했다. 그는 상항(샌프란시스코) 한인 미미미(미국 북감리교회) 미션 홈(기도처)에 가입하였다. 당시 미션 홈의 교역자는 미국 북감리교 태평양 지역 일본 선교 감리사인 H. B. 존슨 목사였다. 이교담은 본 교회 권사로 봉직했다. 당시 속장은 이정래였고, 임치정은 교인이었다.

존슨 목사가 1905년 7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을 위하여 페시 스트리트 521번지에 집을 마련하고 13개의 집대를 포함하고, 두 개의 거실을 사용하여 예배와 기도회를

코의 상항 한인 미미미 미션 홈을 인계받았고, 리드 선교사가 미국 남감리교 소속 한인 전도사 양주삼을 초빙하였기 때문에 이교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드 선교사는 1904년 10월부터 미국 남감리교 중국선교연회 조선 지방회 내 태평양 연안 사역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는 1910년 7월까지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홈을 섬겼다.

공립협회와 공립신보



상항감리교회 1912년

1905년 11월 14일에 공립협회가 샌프란시스코의 퍼시픽 스트리트에 삼층 건물을 구입하여 사무실을 열었다. 그 달 20일에 미주 한인사회 최초의 신문이자 공립협회의 기관지인 공립신보가 창간되었다. 이때 이교담은 회계를 맡았다. 1906년의 샌프란시스코 지진 1년 후 샌프란시스코로 사무소를 이전할 때 이교담은 공립신보의 인쇄인으로 활

삼과 방화중이 의연금 관리를 맡았다. 본보의 사무실은 상항한인교회에 두었다. 공립신보 1907년 7월 19일자는 이교담이 2원을 의연금으로 냈다고 보도한다.

대한매일신보사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교담은 공립협회의 조직 강화를 위해 1908년 국내로 파견된다. 귀국 후 이교담은 국내의 대표적 항일지인 대한매일신보사에 입사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이완용을 처단하려는 사건에 연루되어 이교담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풀려났다. 이듬 해 구한말 군복을 입은 이교담에서 언론운동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 간 절박한 지식인의 모습이 보인다.

타계

1910년 강제 합병이 되자 이교담은 해외로 망명하여 10여 년 동안 표방하다가 1919년에 귀국하러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다. 이교담은 1936년 4월 3일 서울 삼청동 자택에서 향년 56세로 타계했다. 조선 일본은 '언론계의 선배 이교담씨'로 묘사하고 있다.



이교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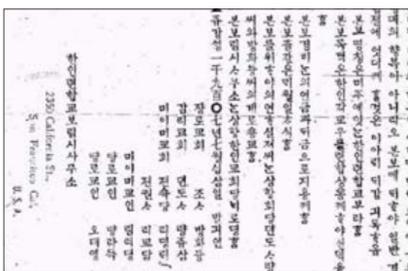
평양 남산현교회 권사... 1903년 하와이 한인기독교감리교회 지방전도사 사역 상항 미션 홈 권사, 공립협회 조직 강화 위해 1908년 한국 파견 강제 한일합방 후 10여년간 해외망명, 1919년 귀국 1936년 타계

흥어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심방을 하였다.

이교담은 그가 23세가 되던 1903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에 지원해 그 해 10월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하와이로 이주한 이교담은 신민회에 가입한다. 신민회는 1903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흥승하, 임치성, 안정수 등과 함께 조직한 하와이 최초의 한인 단체다. 구국 정신 고취와 일본의 침략 행동 반항에 그 목적을 두고 동족 단결과 민지 개발 그리고 국정 쇄신을 강령으로 삼았다. 회장은 흥승하였다. 조직된 지 8개월 만인 1904년 4월에 해체된다.

하와이 감리교 평신도 전도사

'한인감리교선교회'는 1903년 11월에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하는 교회로 시작한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통역관 안정수 권사와 우병길을 대표로 선임하고 그 곳 미국 북감리교회 감리사 조지 L. 피어슨 목사와 교섭



신민회에 난 한인연합교보에 관한 보도

인도할 때 이교담은 권사로서 존슨 목사의 목회를 섬겼다. 그 해 9월 현재 입교인, 세례 받은 입교인 그리고 세례 받지 않은 입교인 등 17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이교담이 포함되고 그를 제외한 16명이 그에게 맡겨진 영혼이다.

이교담의 권사 사역은 1906년 7월까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의 권사사역은 1년 미만이다. 이때 미국 남감리교 내한 선교사였던 크라렌스 F. 리드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

이교담은 샌프란시스코에 49명의 한인이 밀집되던 190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의 주도로 한인공립협회가 결성될 때 이교담이 참여했다. 그는 임치정과 같이 서기로 선임되어 활동했고, 공립협회 대의원도 역임했다. 공립협회는 1903년에 조직된 친목회의 발전적 기관이었다. 동족 상애, 환란 상부, 항일 운동에 그 목적이 있었다. 본 공립협회는 25명의 한인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의 안정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던 샌프란시스코에서 1903년 9월에 결성된 미국 한인단체 조직의 처음이었던 친목회의 확장이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신민회가 실패한 후에 처음 출발한 정치적 운동 기관이었다.

동했다.

1907년 3월 국내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이교담은 임치정과 함께 미주 동포를 대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공립신보 사내에 의연금 총회소를 설치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미주동포사이에 확장시켰다.

신한민보에 난 한인연합교보에 관한 보도

한인연합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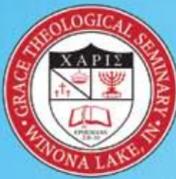
1907년 7월 13일에 한인연합교보를 창간할 때 이교담은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장로교회 조사 방화중과 감리교회 전도사 양주삼, 미미미교회 목사 이정래, 미미미교회 임치정, 장로교인 장라득과 오대영도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본 한인연합교보는 한인 각 교우를 연합 상통케 하여 신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 월보였다. 의연금과 제금으로 지출하고 양주

장서'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시국의 변함 '한일합방'과 함께 해외로 망명하여 가지고 북경, 상해, 난남 등지는 물론 남양군도 지방으로 심어 성상이나 표방생활을 하다가 기미 후에 귀국해 가지고는 이래 가난과 병고와 싸우면서 만년에 고절을 지켜 나려운 터이라 한다."

1999년 광복절 대한민국 정부는 구한 말 항일민족지인 대한매일신보에서 이룬 애국 언론활동과 각종 항일단체에서 활동한 공훈을 인정하여 이교담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1999년 7월 16일자 사회면에 "대한매일신보 직원 항일 투쟁에도 앞장"이라는 제목으로 이교담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damien,sohn@g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성경도 신앙 (20) 청교도들의 예배 (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시편 찬송(찬송)
공예배에서는 시편 찬송이나 찬송을 불러야 한다. 스코틀랜드장로교회나 칼빈의 예배에서는 시편 찬송을 불렀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도가 그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주목해야 한다. 말씀 읽기나 설교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것이며, 기도와 찬송은 그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예배는 그것을 인도하는 설교자와 회중 간의 만남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시편 찬송가 서문(Preface to the Genevan Psalter, 1543)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노래가 되어서는 안되고 가사를 음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

6. 공적인 예배

1)사적인 예배와의 구분

가)구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의 문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신13:5-7.11). 이것은 시온 산성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시온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에 성전은 은혜의 수단이요 예배의 수단이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비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과 교통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으며,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

나)구약과 신약 시대의 장소적인 차이는 분명하다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모든 그림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 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세 사람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일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고 말씀하셨다. 초대 교회 교부 오리겐(Origen)은 “나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사적 예배보다는 공적 예배 중시...예전의식, 성도, 직분자 있어야 신약시대 예배장소로는 건물보다는 예배자의 성결한 마음이 중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성령께서 만드시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보다 좋은 노래가 없으며, 이보다 더 찬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친히 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노래하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개혁신앙에 선 사람들은 시편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구약의 시편은 여전히 성도들의 공예배나 사적인 모임에서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의 다른 표현이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 가지 유형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개혁교회의 성경적인 찬송은 가사가 성경적이며 개혁신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부르다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배자끼리 흥겨워하는 음악 공연처럼 된다면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찬송가 곡조와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곡조와 가사인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찬송은 흥얼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고 했다.
여기서 편의상 시온에서의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다면, 야곱의 집에서 예배를 사적인 예배 혹은 가정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공적으로 하는 예배를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예배보다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경건생활을 사랑하시지만, 시온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공적 예배가 사적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 구약시대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물론 율법 시대에는 공적인 예배 처소가 거룩한 땅이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예배 처소가 어디든 그 장소를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소 문제는 사소한 것이다. 어떤 장소가 예배하기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처소였지만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구약 시대

장소를 찾지 않고 내 마음에서 찾겠다”라고 했다. 우리도 건물보다 더 성결한 장소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구약에서의 공예배와 신약에서의 공예배 사이에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공예배가 사적인 가정 예배보다 선호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근거는 아니다. 예배 처소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성결한 장소를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모두 공예배가 사적 예배보다 더 선호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다)공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공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적으로 사용할 예전 의식(Ordinances)이 있어야 한다. 예전 의식이란, 기도와 찬양, 말씀 읽기와 선포 및 성례 거행을 말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전이다. 공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가 정당하게 행해져야 한다.
둘째는 회중이 있어야 하는데, 회

중이란 예전 의식들을 수행할 성도들을 말한다. 한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지 않는다. 한 가정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공적으로 모이는 지역 교회의 합동 예배를 공예배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반드시 직분자가 있어야 한다. 직분자란 예전 의식을 집행할 합법적인 자로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교회가 청빙한 자이다.

7. 공예배의 유익

1)하나님은 사적인 예배보다 공예배에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신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수록 주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다윗의 승리를 몇몇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을 때 그의 영예가 더욱 커졌다(삼상 18:7). 시편 기자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사실에 혼자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은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촉구한다(시96:1-3).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주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시편 22편 22-25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예배가 무시되고

경멸될 때,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것처럼 책망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가 하는도다”(말1:6).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의식을 말한다(말1:7, 8, 11).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살후1:10).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사적인 예배보다 공적인 예배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길을 간다

길이 있다. 나는 길을 간다.
노랑모자 쓰고 유치원 가던 병아리 같던 시절도 핑크빛 사랑에 잠겨서 이룬 밤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 맘 빨갱게 물들었던 시간들도 어느덧 지나 엄마의 길 사모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간다.
길을 걸으며 일상의 유쾌한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배신 분노 원망 외로움... 이런 숱한 상처들로 골이 저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님! 하면서 앞드리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걸으며 함께 밥을 먹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끝까지 서툰 일이라서 혼신을 다한 사람의 몸짓들로 때문 지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 우리네 삶이 견딜 것을 제대로 견뎌야 진정한 삶일 텐데, 그 견디는 일이 어쩌면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라 부질없이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얼까? 우리 인생이 무언가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조금씩 더 영글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폭삭 영글어 썩은 밀알이 되어 죽어야 산다는 성경의 진리 때문에 오늘도 잃어가는 아픔을 절절히 누려본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일거리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작 우리를 탈진되게 하고 기력을 잃게 하는 것은 많은 일거리도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이리라.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싸워도 보고 안되면 소송까지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정작 관계가 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로 애써 보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견디고 견뎌야 할 걸긴 인연인데... 장난감 하나로 온 세상을 바꾸는 천진한 아이 마음으로 제자의 발을 씻긴 낮춤의 비결을 체득할 수 있다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
때론 고여서 썩은 물과 같이 편안하게 안주하려던 한숨 나는 생활을 나의 진통과 맞바꾸는 진한 흘런이 죽을 것 같이 힘든 때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가슴에 꼭 박힌 주님의 그 처절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오펝이처럼 일어나 또 살아지는 그것은 ‘영이 행복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리라.
그렇다. 하루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데 늘 이렇게 살지 말자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수십 번 결단하고 산들, 그것이 아직 내일의 일이라면 급기야는 고장이 나고 관계가 깨지고 병이 나고 말 것이다. 무엇이든 매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늘 하루 꼭 차게 매일하던 일을 신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어쩌려든 우리는 무지와 가난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조금씩 탈출하여 매일 이기고 매 순간 나를 초월하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야말로 매일의 우리 일과이리라.
내 욕망 중에 최고 욕망은 ‘참 나’를 살고 싶은 욕망인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나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리라. 이 길 끝에서 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changsamo1020@gmail.com

사역자 청빙

함께 동역하실 신실하신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구분: 파트 혹은 풀타임 사역자
- 부서: 교육부와 교구 (영유아부 / 중등부 / 주중학교 / 교구)
- 자격: 정규 신학교 졸업 전도사 목사
- 이력서 보낼 곳: jhoyee@hotmail.com
전화: 281-752-0700 Ext.2
- 저희 교회에 대한 정보는 www.kcpch.org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APU 2016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이 17일 오후 1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은 학위수여식 전에 열린 본교 신학교 후당세메모니를 마친후 신학교 한인학위수여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총 457명...한인 22명 졸업 APU 2016 가을학기 학위수여식

아주사피서픽대학교(APU 총장 존월레스 박사)는 2016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을 17일 오후 1시 본교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펠릭스 이벤트센터에서 열고 45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한인학생들은 총 22명으로 다음과 같다. 풀최, 수잔 최(이상 교육학), 한대역(목회학), 토니 안(물리치료학) 등 4명이 박사학위를, 광진숙, 김은애, 신영순, 안기원, 유순미, 세라 이, 예니 한(간호학), 김은숙, 최범철(목회학연구과정), 전다희(교육학), 서소희, 김수영, 이신일, 임종근, 다니엘홍(목회학), 박모세(신학연구과정), 데이빗 박(경영학), 이현곤(리더십).

존월레스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레이 마진즈 목사가 기도했으며 마일드레드 오엔 박사가 성경봉독했고 글랜 건더슨 주니어 박사(Purpose Church)가 'Find Your Purpose, Find Your Risk(마 4:18-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학위수여식을 가졌으며 로버트 듀크 박사(본교신대 학장)가 축도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본교 이스트캠퍼스에 위치한 문선 채플에서 신대 후당세메모니를 거행했다.

(박준호 기자)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장 정승호 목사에게 안인권 목사(오른쪽)가 구호금을 전달하고 있다.

새소망교회, 아이티에 뜨거운 사랑 바자회수입금 1만8천불 국제기아대책에 전달

메릴랜드 버틀스빌에 위치한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기 12월4일 주일에 전교인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구제현금 18,000달러를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이사장 배현찬 목사)에 전달했다. 이번 구제현금을 마련한 새소망교회 안인권 목사와 교우들은 지난 가을 카리브해에 불어 닥친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1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집과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아이티 난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아이티는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진흙구리로 연명하는 아이들이 여전한 나라이다. 이 나라가 2010년 대지진 이후 인구의 1/3이 피해를 입고 22만명이 죽고 30만 이상이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국가 기반 시설조차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밀려온 초강력 허리케인은 아이티를 또 한번 크게 절망하게 했다.

새소망교회는 현재 새 교회건물을 마련하고 대규모 리모델링 건축에 돌입한 상태여서 건축비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안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부탁하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교의 대위 임령은 사랑의 대사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라며 힘주어 강조했다.

이 구제현금은 국제기아대책의 긴급구호팀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제레미와 레 카이로부터 서남부 해안 지대 마을에서 구호복구를 위해 쓰여진다. 이미 구호팀은 전기가 끊어지고 나무, 농지, 농산물, 가옥과 교회, 학교, 도로, 다리가 무너져 접근조차 어려운 5개의 마을을 방문하여 식량과 식수, 약품을 공급하고 가장 두려운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전했다.

(기사제공: KAFHI)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지휘 조한우)은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지난 7일 만리장성에서 가졌다.

(기사제공: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2016아주사송년의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 갖고 사역" 2016 아주사 송년의 밤

아주사피서픽대학교(APU) 한인 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2016 아주사 송년의 밤이 19일 오후 6시 본교 웨스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1부 순서는 최장식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 만찬의 시간을 가졌으며 동문소개 및 본교 동문회 피터 스마트 부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이집트 콕트 아라비교회 성도들이 특별 찬양했다.

이요한 목사의 찬양인도와 박운송 목사(엘피스사역원 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순서는 본교동문들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학교를 위해 통성 기도했으며 김진형 전 도사(본교 재학생 회장)가 기도했다.

이어 차광일 목사(한빛성결교회 담임)가 '나의 나 된 것'(고전15: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차 목사는 "바울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있는데 구원하신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사명의 확신

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 그것만 가슴에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APU동문들은 남은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여건가운데 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중의 길 가게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교 재학생들이 특송했다. 이어서 신원규 목사(좋은소식교회 담임)와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가 격려사를 했으며 본교동문회 증경회장 류창식 목사가 축도했다.

오위영 목사의 축가후 시작된 3부 순서는 김재호 전도사(에브리데이교회) 사회로 이날 모인 동문 및 재학생들이 함께 교제와 선물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동문송년 및 감사의 밤

베데스다대학교 동문송년 및 감사의 밤이 본교 총동문회(회장 최창수 목사) 주최로 15일 오후 6시 30분 The Rock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사)에서 개최됐다.

동문회 총무 박정기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만찬의 시간을 통해 동문들이 사역과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마련한 미니콘서트, 그리고 선물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문회장이 동문회 임원소개를 한 후 증경회장 최명상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동문송년 및 감사의 밤이 The Rock한인교회에서 열렸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이 완전하며 복 받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건축물이 잘못 됩니다. 정초의 계획이 잘못되면 일 년의 삶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내 머리를 굴리고, 그 계획을 실천할 때에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할 때 더 많이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건축물을 위하여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인생의 삶을 되는데로 살아 갈 때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계획을 세우되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

하는 방법 중의 제일입니다.

2)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빌4:13).

주님의 뜻에 맞는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설계를 했으면 건축을 해야지 설계로 끝나면 건축물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힘은 곧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이나 학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면 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2010년 2월에는 당시 31세 된 Rashad Hussain을 이슬람교의 친분을 위한 "백악관 사절 특사 변호사"로 뽑았는데 이 사람은 무슬림 형제단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진 사람이며, 그는 미국에서 테러를 자행한 사람 중 한명을 변호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다.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최근에 밝힌 중요적 무슬림들을 몇 명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뉴욕에서 최초로 무슬림 여성 판사를 뽑았고, 그녀 역시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친이슬람으로 잘 알려진 John B. King을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교육부장관)으로 뽑음으로 John B. King에 의해 이슬람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슬람신앙에 대해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어도 이들이 크리

기도/칼럼

내 인생의 12월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12월 마지막 달이다. '아니 벌써'라는 말이 나온다. 한 해가 시작할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달이다. 해를 거듭 할수록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연말이 되면 더 쫓기게 된다.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 진다. 연말과 성탄의 분위기에 휩싸여 그냥 일제 따라 움직이게 된다. 왜 뛰여 다니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돌아다닌다. 나중에는 남는 것도 없이 피곤하고 허전해진다. 마치 보물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엔 허탈해진다.

12월에는 잠시 쉬어가야 한다. '바쁠수록 천천히'라는 말이 있다. 무조건 달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지금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앞날을 예측해 보며 비전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나무꾼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앞으로의 발목을 준비하는 타임이다. 계속 도끼를 사용하지만 하면 날이 무디어져 고생만 하게 된다.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라. 열심히 사는 것과 바쁘게 사는 것은 다르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다르다. 죽도록 일만 하는 것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헤아려 보아야 한다.

언젠가 인생의 12월도 올 것이다. 다시 1월을 맞이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날이 오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때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 욥은 말년에 복을 받았다. 다니엘은 마지막에 평강을 누렸다. 한 해의 끝자락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12월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7).

이메일: bible66@gmail.com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가 14일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바이올린 주일엽과 피아노 류자연이 'Panis Angelicus'와 'Brahms Hungaria Dance No.5', 케이시유와 강보미의 'Astor Piazzolla Four Seasons 'Winter' for Piano 4hands' 피아노 2중주,

테니 전승철이 'O Holy Night', 바이올린 박윤재와 피아노 류자연이 'Por Una Caveza 'Scent of Woman' OST, 클라리넷 배태의 'You Raise Me Up' 연주가 있었다. 이어 본교 찬양사역과 학생들이 합창, 본교교수들의 밴드연주, 박희진 교수의 독창무대가 있었다. (박준호 기자)

것을 체험한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고전 12:9).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3)가슴 벅찬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잠10:28).

잠10:28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 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져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밝은 태양을 동녘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태양을 볼 때 소망을 품고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더욱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낯선 가나안에 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아 오는 새해에는 그 크고 찬란한 소망을 품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며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16도 마지막 달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거울로 바라보며,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슴 벅찬 소망을 품고 오직 주를 향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캐나다 노회 소속 토론토 빌라델비아장로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

▲문의: kppcpastornomination@gmail.com

“신년특별구국기도회”

미주대한민국어머니기도총연합회(회장 박에스터 목사)가 주최하는 “신년특별구국기도회-조국대한민국을 회복시켜주소서!”가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 뉴저지성장은교회에서 개최된다.

▲문의: (201)835-2427

“하나님이 주신 선물-추억의 콘서트”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추억의 콘서트”가 유대웅 목사(지성스예배 사역자)와 제시유 교수 진행으로 12월 25일 저녁 5시 플라시 스페이스커피하우스(164-05 Dopot Rd)에서 열린다.

▲문의: (646)258-4161

지역별 운영, 선거제도 개선 등 발표
43회기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 사업 예산안 통과

제 43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19일 첫 임실행위를 열고 2017년 사업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라는 표어로 출발한 43회기는 △운영방안의 전환으로 3개 지구 1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이 연합해 교회를 돕는다는 개념을 설정했다.

각 지역별로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대학 체육대회 부활절과 할렐루야대회를 협력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또 할렐루야대회는 불신자 전도를 겨냥하며 마지막 남은 다민족을 포함하는 대회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선교 활동으로 연합선교, 사회복지 구제, 지역사회, 이단/반기독교 문제 등에 집중한다.

△제도의 개선으로 부회장은 투표하지 않고 회장만 투표하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후보 등록비가 없다는 것과 러닝메이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협 2017년 스케줄 표에 따르면 △2017년 1월 16일 신년하례찬찬, △4월 16일 부활절새벽연합예배 △5월 29일 연합체육대회 △7월 7-9일 할렐루야대회 △9월 17일 연



뉴욕교협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합동화행사 △12월 2-12일 종교발상지 순례 △23일 43회기 정기총회로 계획돼 있다.

예산은 전 회기와 비슷한 수준인 총 37만 달러로 책정됐다. 특이한 점은 수입에서 회비를 현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리는 것과 이사회에서 1만 달러를 입금하는 것으로 책정됐으나 회비인상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회기에 특별한 점은 전년에 비해 장학/교육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으며 신년하례찬찬은 떡국만찬으로 대체해 간소화 한다고 발표했다.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김원기 목사(선관위원장), 설교 분석호 목사(중부지구 대표), 광고 임병남 목사(총무), 축도 양승호 목사(법규위원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마11:7-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광야는 이 세상이고 목회현장인데, 세상의 불의한 일만 보면 시선이 왜 곡될 수 있다. 청교도 목사들은 내외부적으로 시련당할 때 왜 때들을 잘 지켰다. 교협, 목사회를 왜 만들었나? 뭘 보기 원하는가? 성도들의 관심을 주 예수그리스도께 돌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목사들도 우리 시선을 예수께만 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회장 김홍석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현영감 목사, 회원점명 최현준 서기, 사업보고 임병남 총무, 재정보고 이광모 회계, 안전도의, 기타도의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증경회장합 회장에 신현택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협의회 총회가 12월 12일 오전 11시 교협 회의실에서 열려 회장에 신현택 목사, 부회장에 한재홍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 신현택 목사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과일바구니’ 150개 전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성탄 즈음에 마련하는 ‘사랑의 과일바구니’가 올해도 전달됐다.



지역사회 관공서와 단체, 힘든 이웃들에게 배달되는 ‘사랑의 과일바구니’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퀸즈장로교회 4개 회중(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모여 만들기 시작했으며 오찬 후 특별로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달한 곳은 예년과 같이 소방서, 경찰서, 마케도니아교회, 커뮤니티 보드, 내성홀, 상조회, 한인봉사센터, 밀알, 국제장애인선교회, 부스메모리얼병원, 189JHS, 새생

명성교회 뉴저지서틀과킹 등과 지역주민들을 포함하며, 총 150개의 과일바구니를 전했다. 행정국장 고국환 장로는 “42년간 주민들과 함께 해온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커뮤니티와 나누기 위한 행사”라고 소개했으며, 예배위원장 김원도 장로는 “다민족 선교의 비전을 가진 퀸즈장로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단체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성탄연합찬양축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에서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공연하고 있다.

“연합의 아름다움과 힘...”
단비TV 5개 이사교회 성탄연합찬양축제

단비TV 이사교회가 함께 하는 성탄연합찬양축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지난 18일 저녁 6시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됐다.

단비TV(사장 정상교)가 주관하고 아플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목사),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프라미스교회(김남수 목사), 필그림교회(양준길 목사), 후리스제일교회(김정호 목사)가 주최한 이 찬양축제는 5개 교회 담임과 영어 목사들의 ‘목자들의 찬양’을 시작으로 양준길 목사의 개회기도, 5개 교회 담임목사들의 ‘성탄이야기’, 트럼펫 솔로(노은정)에 이어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문을 열었다.

이어서 아플라연합감리교회 아노스찬양팀, 후리스제일교회 찬양대, 프라미스 어린이합창단, 프라미스교회 찬양대, 후리스제일교회 청년공동체, 아플라연합감리교회 찬양대,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찬양대, 필그림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던 후 연합찬양을 하고 김남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단비TV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등 교단이 틀리고 지역이 다른 5개 이사교회가 함께 모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합의 아름다움과 힘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회장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에 성령의 불을 지피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9대 회장 김영환 목사 취임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제 9대 회장에 김영환 목사가 취임했다.

김영환 목사는 “뉴욕에 성령의 불을 지피자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며 “목사회 회장을 마치고 이어서 성령운동협의회를 맡아 뉴욕의 성서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말하고 “기도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플라시 대동연합회에서 열린 취임예배는 본부장 허윤준 목사 사회로 기도 김원기 목사, 성경봉독 장현숙 목사, 말씀 장석진 목사, 취임사 김영환 목사, 공로패 증정 이만호 목사, 축사 황경일 목사 방지각 목사 김용길 신부, 격려사 송병기 목사, 특주 유진웅 교수, 통성기도, 광고 김경열 사무총장, 축도 신현택 목사, 만찬기도 김용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뉴욕에 성령의 불을 지피자!”(사7:19-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다. 뉴욕 도성을 살

리는 동력은 성령의 불을 불어와 한다. 요즘 성령부흥집회가 사라지고 문화콘텐츠로 바뀌고 있으며 설교에서도 윤리, 심리, 도덕적인 말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개혁만으론 불충분하고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 돼야 한다. 삶의 모든 분야에 성령의 불을 불어주는 뉴욕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는 고문, 특별자문위원, 협동총무, 실행위원 등 조직을 발표했다.

임원은 △회장 김영환 △본부장 허윤준 △본부장 박진하 △사무총장 김경열 △서기 이창중 △회계 박종오(이상 목사).

한편 뉴욕시 경찰자문위원회 마이클 린 회장이 참석해 회장 김영환 목사를 경찰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유원정 기자)

Advertisement for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in the East (동부 NY, NJ) and Hawaii & Midwest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t lists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and Hawaii branches.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are provided for each church.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

벤추라카운티 교회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

벤추라카운티 교회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씨미밸리한인교회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드러졌다.

벤추라카운티 교역자협의회(회장 김민영 목사) 주최로 열린 찬양예배는 씨미밸리한인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반채근 목사(씨미밸리 한인교회) 사화로 예배를 시작했으며 조인 목사(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의 기도와 특

별 찬조 출연한 글로아 난타팀의 난타로 찬양의 문을 열었다.

이어 주님의 교회 성가대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브라질리아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과 벤추라카운티 교회와 중고등부 워십팀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캐롤과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며' 찬양에 맞춘 합창 워십 밴드로 영광을 돌렸다.

설교는 김진구 목사(옥스나드한

인교회)가 누가복음 2:8-11절을 본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뤄진 일로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요지로 전했다.

또한 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의 봉헌기도와 연이은 찬양의 순서로



2016년 벤추라카운티 교회연합 성탄감사 찬양예배가 씨미밸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더텐트 3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마당물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해피크리스마스 워드 더텐트’

더텐트 3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콘서트가 17일 오후 6시 한인 타운에 위치한 마당물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해피크리스마스 워드 더텐트’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는 해피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가 A Christmas Festival(Leroy Anderson), Marriage of Figaro Overture(W.A Mozart), A Festival of Carols(Arr. by Douglas E. Wagner), Liber Tango(A. Piazzola)곡을 연주하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크리스마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축같은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해리스밴드와 베데스다대학교 찬양사역과 학생들인 김옥준 형제와 박정현 자매의 무대는 이날 마당물 광장을 찾아온 관객들이 관심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또 찬양사역자 강근영 자매가 수어찬양사역자이자 수어전문가인 김민경 씨의 수어에 맞춰 ‘그중의 그대를 만나’를 불러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소프라노 김은혜 씨와 베이스 이사호 씨의 성악무대가 펼쳐졌을 땐 한겨울밤 마당물을 애워 쌓던 추위를 뜨거운 열기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이날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이민우 전도사는 트럼펫주자 유강수 목사와 건반연주자 최영광 형제와 함께 ‘행복을 주는 사람’, ‘축복합니다’, ‘1960년겨울/또다시크리스마스’를 불러 3주년 공연을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한편 더텐트는 2017년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콘서트 외에 양로병원을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는 나성교회에 43명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장난감을 기부했다.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구세군 나성교회에 장난감 기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장난감과 음식을 나누어 온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에 함께 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는 나성교회에 43명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장난감을 기부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함께 동참하고자 하

는 그들의 마음은 더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데 충분했다.

이주철 사관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구세군 나성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213)480-0714
(기사제공: 구세군 나성교회)



LA 서울 라이온스 클럽 주최 ‘사랑의 이웃돕기 자선 음악회’가 CGV 마당물에서 열렸다

‘사랑의 이웃돕기 자선 음악회’ LA 서울 라이온스 클럽 주최

LA 서울 라이온스 클럽(회장 김익수)가 주최한 ‘사랑의 이웃돕기 자선 음악회’가 18일 CGV씨네마 마당물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비바운티 레오클럽, 미션 뮤직 클럽 주관으로 열렸다.

김익수 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구세군 나성교회의 찾아가는 자선 멤버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한낱 마켓에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서 자선멤버 모집 운동을 돕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러한 행사를 더욱 열심히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LA 서울 라이온스 클럽)

서부교계 게시판



임마누엘장로교회 대강절 말씀기도집회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 대강절 말씀기도집회가 ‘내 평생에 한 영혼 구원하기’라는 주제로 19-24일 오후 7시30분(월-금), 오후 5시30분(토)에 개최된다. 강사는 조종연 목사(월), 장경록 목사(화), 김대오 목사(수), 조다윗 목사(목), 석정일 목사(금), 송호영 목사, 손원배 목사(토).
▲문의: (408)263-5100

CRC코멘노회 목회자 및 교회 영입
CRC 교단에 소속된 코멘노회(노회대표: 서기 임지석 목사)에서는 2017년 봄노회를 앞두고 남가주에 거주하는 이민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진 복음주의에 속한 목사님과 교회를 영입한다. CRC 교단은 건강한 신학과 함께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소수 인종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강한 교단이다.
▲문의: (213)219-9229(임지석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2017 신년축복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2017 신년축복성회를 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비전센터에서 갖는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
▲문의: (213)749-4500

은혜한인교회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이슬 새벽부흥회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2017년 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일(월) 한기홍 목사, 3일(화) 최규남 목사(GMU 총장), 4일(수)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 5일(목) 삼장섭 목사(샌디에고갈보리교회 담임), 6일(금)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7일(토) 김춘근 장로(GLDI 대표)이다. 부흥회 시간은 월-금 오전 5시20분, 토 오전 6시.
▲문의: (714)446-6200



미주기독교의사협회 이취임식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희목 목사, 정종오 회장, 우측끝이 김성일 초대회장, 2번째가 전임 이기미 회장

신임회장에 정종오 원장 취임 미주기독교의사협회 이취임식 및 송년예배

미주기독교의사협회(미기협, 회장 정종오)는 지난 11일 오후 5시에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성탄축하예배와 송년파티를 가졌다.

전동석 LA카운티 커미셔너와 정광석 재미영화인협회장, 신관수 인 천공대교수, 김영리 근막치료학회장, 김용훈 전 호남향우회장 등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햇불선교회 정희목 목사(한인사)가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전임 8대 이기미 회장과 신

임 9대 정종오 회장의 이취임식에 이어 조행식 부회장과 사론김 총무의 진행으로 즐거운 유혹시간과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미기협은 크리스천 한의사들의 모임으로 매월 둘째 주일 오후 5시에 예배와 4시간 무료보수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종오 회장은 많은 한의사와 한의대 재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213)500-6393, 703-8541
(기사제공: 미주기독교의사협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토), 6시(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영양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찬양예배: 오후 1:2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영양예배: 저녁 7:30	등문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영양찬양예배: 오전 6:30(토) 공요찬양예배: 오후 7:45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성회))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영양찬양예배: 오전 11: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영양예배: 오후 7: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영양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성회)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영양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영양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찬양예배: 8:35(월-토)	주님세계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936-4400 Fax: (718)93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개신교만 교인 증가...국민 5명 중 1명 '교회다닌다' 도래 130년 만에 '제1의 종교'된 개신교...통계 의미 분석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인구 표본 집계'에서 개신교가 대한민국 '제1의 종교'로 올라선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근래 들어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등 개신교 주요 교단의 자체 조사에서 신자 수는 감소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개신교인 특유의 신앙적 열성이 최근 들어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다.

종교적 열성+온라인조사 반영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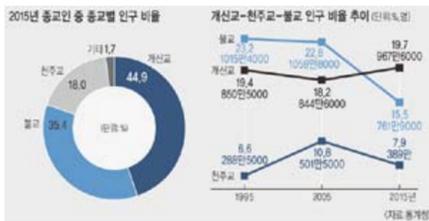
이원규(실천신학대 종교사회학 석좌)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타 종교에 비해 개신교인의 신앙적 열성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며 "그런 차이가 신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종교의례 참여율에 대한 조사에서 개신교인 중 '일주일에 1번 이상 예배에 참여한다'고 답한 사람이 80%나 됐다. 반면 천주교인은 59%, 불교인은 6%에 불과했다. 개신교 성도일수록 교회 출석률이 매우 높고, 한번 교회에 출석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천주교 및 불교 신자 비율이 10년 전보다 각각 7.3%포인트, 2.9%포인트 떨어진 원인과 신앙적 열성이 무관치 않다.

이번 조사가 온라인으로 실시된 점도 충분히 결과에 반영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사 응답자는 충분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충실하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보다 더 많이 온라인조사에 응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여론조사전문업체 지앤컴 지용근 대표는 "온라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자 참여도가 높다"면서 "개신교는 타 종교보다 고학력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부정적 해석도 제기된다. 지 대표는 "인구센서스 조사는 보통 가정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약간의 오류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의 종교를 묻는 질문은 '개신교'라 답할 수 있다"고 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정재영 부소장은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이른바 '가나안 성



도'들이 통계치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했다.

1020세대 무종교 최대

'종교가 없다'고 답한 답변자 중 20대의 비율(64.9%)이 가장 높았고 10대(62.0%)가 뒤를 이었다. 종교를 가졌다는 인구 비율도 20대가 35.1%로 가장 낮았다. 정 부소장은 "취업난 등을 겪으며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종교가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지 대표는 "20대의 정치 성향은 가장 진보적이며 사회 개혁적"이라며 "청년들이 종교인 부정부패에 실망하면서 종교를 갖지 않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무종교인(56.1%)이 처음으로 절반을 돌파한데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규 교수는 "무종교인 증가는 종교 세속화 현상의 전형적 형태로 서구에서 종교가 쇠

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할수록 종교보다는 인생을 즐기는데 더 가치를 둔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했다.

개신교인 '서고동저'현상 이어져

전북과 전남 광주 충남 인천 등 한반도 서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신교세가 강한 '서고동저' 현상이 이번 조사에서도 뚜렷했다. 이들 지역이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곳이라 신앙의 토착화가 잘 이뤄진 특성을 보인다. 이원규 교수는 "특히 호남은 역사적으로 차별과 박탈감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따라서 개신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교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종교간 갈등 등 역풍을 우려한 때문이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가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데이터"라며 "외부 비판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사회가 정밀적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찾게 된다는 걸 보여준 통계치"라며 "개신교는 이제 철저한 반성과 낮아짐을 통해 초기 개신교의 열정과 신앙을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교회의 정치 참여, 성도-목회자 인식차 크다 성도 58% "관여 말아야" 목회자 64% "목소리 내야"

양극화 심화와 안보 불안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신교인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전쟁 위험을 느끼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고 조사됐다.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주요 분야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신뢰도가 추락한 모습이 역력했다.

한국기독교인론포럼(한기연·이사장 김지철 목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일반 성도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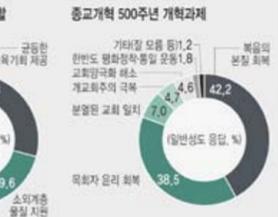
사회안전지수 '낙제점'

여론조사전문 업체인 지앤컴 리서치가 지난달 3-18일 개신교인 1000명(일반성도 900명,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일반성도 87.5%는 '정부의 재난 안전대비 수준이 미비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 안전지수(100점 만점)' 평가에선 일반성도와 목회자가 낙제점 수준에 가까운 40.1, 53.3점을 각각 제시했다.

성도들은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재난능력 부실'(4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목회자들은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36.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쟁 불안 체감도'에서는 성도 66.6%가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52.6%)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6.0%로 지난해(23.0%)에 비해 무려 53%포인트나 치솟았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국내외적으로 안보 불안과 재난 및 지진의 위험, 저성장 기조와 양극화에 따른 존재론적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공적인 도움과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교회가 양극화 해소에 역할 말아야"

경제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양극화·빈부격차'였다. 성도 46.3%와 목회자 59.0%가 꼽았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교회 역할에 대해 성도들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29.3%), '소외계층 물질적 지원'(19.6%) 등을 제시했다. 목회자들은 '경제정의 실현'(29.0%), '대형교회의 미자립교회 지원'(28.0%) 등을 주문했다.

백 원장은 "경제적 갈등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교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의 본질 회복' 최우선 과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복음의 본질회복' '목회자들의 윤리 회복' 등이 제시됐다. 이 단 및 사이비단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교단·교과 초월한 상시대행기구 설치'가 가장 많았다.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목회자 수급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6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성도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58.3%)고 가장 많이 답한 반면, 목회자들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64.0%)는 답변이 최대였다.

통합 테이블 다시 앉은 한교연 추진위 9명 재편 요구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연추위)에 미온적이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추진위원 재편을 전제로 연추위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연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중구 코리야호텔에서 연추위와 간담회를 갖고 교회연합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교회 연합하는 게 진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던 한교연은 이날 파송위원 4명 수용과 특정인사 배제를 요구했다. 파송위원은 김요셉 한영훈 전

대표회장과 이성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성삼(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며, 특정인사는 한교연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이종승(예장대신 총회장)이다. 한교연의 요구가 수용되면 연합추진위는 한교연 4명, 한기총 3명, 한국교회교단장회의(기독교대한감리회, 예장합동) 2명 등 총 9명이 된다.

현재 교단장회의와 한기총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 한기총은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기감과 예장합동은 한기총과 한

교연에 가입돼 있지 않다. 문제는 2012년 한교연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예장통합과 설립 5년차로 조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한교연이다.

한교연의 의사결정 권한은 사실상 기구 설립에 크게 기여한 김요셉 한영훈 박위근 전 대표회장에게 있다. 한교연 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예장통합의 이성희 총회장의 영향력도 크다.

교계 한 관계자는 "한교연은 2011년 한국교회 분열의 당사자이며, 예장통합은 한기총을 박차고 나와 한교연을 설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교단"이라며 "김요셉 한영훈 박위근 이성희 목사는 현재의 한국교회 분열 상황을 절대 관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과 예장통합은 현재의 분열구도가 그리 불편하진 않겠지만 현장의 교회들은 '자기들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교회의 희망, 사회의 등불' 장자교단"이라고 외치지 말고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유관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도 "한국교회 연합은 화학적인 기구 결합이 아닌 건강한 교단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넣고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한 건강한 교단 간의 연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2일까지 한교연 요구 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총, '류광수 다락방' 회원자격 보류 결정 이단대책위 "이단성 면밀 검토"...한교연에 손 내민 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류광수씨가 이끄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대표회장 정은주)에 대한 행정보류(회원자격 보류)를 전격 결정했다. 류씨는 '귀신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통교회를 비판한다'는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합심,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류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이는 '이단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통합의 의를 할 수 있다'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주요 교단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통합의 의를 할 수 있다'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주요 교단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중선 한기총 사무총장은 18일 "이번 이단위 결정은 그동안 이단을 배제해 달라는 한교연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류씨의 이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한교연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한기총을 한교연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포함한 한국교

회 연합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대위의 결정은 향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된다.

한교연은 그동안 '한기총의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한국교회 연합 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된 연합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한교연 전임 대표회장들의 영향력 축소와 군소 회원교단이 배제된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였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의 행정보류 결정으로 한교연의 대화불가 사유는 사실상 해소됐다. '이단과 함께할 수 없다'며 한기총에서 탈퇴하거나 거리를 뒀던 예장통합과 합동, 대신,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투터회, 대한기독교나사렛교회에도 복귀 명분이 생겼다. 이들 교단이 한기총에 복귀하면 다수의 총대가 확보되고 자연스럽게 한기총 내 이단옹호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 한기총 조직 개혁은 물론 한국교회 연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류광수 다락방"에 대한 행정보류로 예장합동과 대신의 한기총 복귀가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기성 등 건전한 교단도 뒤따를 것"이라면서 "한교연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친다면 훗날 교회분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죽으리이다” 신사참배 거부 성도 독립운동가 추진

사단법인 '아침'과 새누리당 김한표·이주영·이혜훈 국회의원이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되거나 순교한 성도에 대한 독립운동가 서훈을 추진하고 있다.

아침 등은 14일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손양원 목사는 훈장을 받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일제의 온갖 회유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3-6년씩 감옥에 투옥됐고 심지어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까지 했지만,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껏 올바르게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서

훈 추진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일본은 신사참배 반대 신앙인들에게 국가의 권위와 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해 치안유지질서 위반으로 엄하게 다뤘다. 2000명이 넘는 신사참배 반대 신앙인들이 투옥됐고, 50여명이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일제에 옥중 순교했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 신앙인들은 그동안 국가보훈처로부터 단순한 종교활동으로 평가돼 독립운동가 추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6 한국교회 목회 결산 교인감소·목회자 윤리추락...

현장 목회자들에게 2016년은 다사다난했다. 교회 안팎에서 터져 나온 크고 작은 일들로 내외외환에 시달리면서 이를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한 해이기도 하다. 문서 선교사역과 목회컨설팅·상담·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목회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목회연구 전문 사역자 3인을 통해 2016년 목회 분야를 되짚어봤다. [미션라이프]

'고군분투'했지만 '노 포인트'

교회성장연구소 본부장 김형근 목사는 올해 목회분야 키워드로 '고군분투'를 제시했다. 김 목사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 수 감소로, 밖으로는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 문제 등으로 현장 목회자들의 고민과 애로가 많았다"면서 "저마다 둘러싸인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해였다"고 되돌아봤다. '노 포인트(No point) 교회' 21

세기목회연구소 소장 김두현 목사의 진단이다. 김 목사는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목회의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상실한 듯한 모습이 반영됐다"며 "노 포인트, 즉 핵심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 해였다"고 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월간 목회 대표 박종구 목사는 '질문의 해'였다고 했다. 목회 현장을 향해 던지는 세상의 질문이 유독 많았던 해였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회·목회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 단체 등의 공격으로부터는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 되묻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런 상황은 교회 존재를 위협하는 위기일수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볼 때 '잠자는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목소리'(요나 1:5~6)처럼 한국교회를 깨우는 노크 소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목회자 윤리 추락 어찌할 것인가.

올해 목회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을까. 연구자들은 '목회자 윤리·도덕성 추락'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개별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다문화 선교단체 사역자와 해외 선교사 등에 이르기까지 불거진 비위·탈선 문제는 선교·전도 동력에 큰 타격을 줬다고 입

을 모았다. 대통령 탄핵정국도 목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박 목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곧 교회가 제대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교회의 사회 참여, 교회와 국가 간의 바른 관계에 대한 신학·성서적 해답을 찾는 일도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구글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신학적 대제 문제도 관심거리였다. 이밖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단 및 교회연합기구들의 공신력 추락 문제, 교회·교단들의 분쟁·소송 문제 등도 올 한해 목회 분야의 이슈로 떠올랐다.

'3040' 모시기와 교회의 자립

담임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들어왔다. 김형근 목사는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세대'를 어떻게 붙잡느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해"라고 돌아봤

다. 한국사회의 3040세대는 일반적으로 일과 자녀 양육에 치이는 맞벌이 세대다. 특성상 교회 내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구역·소그룹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세대를 향한 목회자들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두현 목사는 '자립'을 꼽았다. 그는 "불과 수년 전만해도 중소형 교회의 자립 마지노선은 100명 정도였다"며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그 마지노선이 이제는 150명으로 높아졌다. 미자립 교회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목회자 이직'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 역시 이같은 목회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게 김 목사의 진단이다. 박 목사는 "급변하는 목회 환경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가치관까지 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기

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것인지, 영적인 고민과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등에 고민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눈앞에 둔 종교개혁500주년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박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 지향, 양적 성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성숙 지향'을 향한 전환점"이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 영성 개발에 목회자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목사는 "기본·본질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라며 "반기독교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기독교의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두현 목사는 "교회 밖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아웃사이더가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mission 선교의 창 (69)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또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가?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날들이었는가? 인간은 누구나 년차가 되면 큰 포부와 각오로 시작한다. 그러나 세월의 뒷 속에는 세 중심을 잃고 표류하곤 한다.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수의 사람들은 특이한 찬승리보다 쓰라린 실패를 되짚게 된다.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 때문이라.

세월은 야속하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 세월에 대한 인간의 체감 속도는 인간의 나이에 반비례한다. 나이 들수록 화살처럼 지나간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엄위로우신 주님 앞에 서보아야 한다. 그것은 아픈 사연들을 시간의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참회를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다.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이에 동식물이 생기고 늙어 죽어가는 시간이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보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다 잡아 먹는 시간의 신으로 나온다. 그렇다. 모든 생물은 시간에 의해 잡아먹힘을 당한다.

정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시간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미모와 지식, 젊음과 물질, 명예와 체력 그리고 목숨까지이다. 크로노스 시간은 매우 냉정하다.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섭다.

카이로스

카이로스(Kairos: Kairos)

치는 경우이다. 셋째는 늘 깨어 있어 순간순간의 기회를 자기 삶으로 포착하고 소화하는 경우이다. 우리 인생이 부요하게 되려면 생명이 없는 크로노스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카이로스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종류 시간 개념의 차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개의 헬라어,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로 이해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미화한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인(horizontal) 혹은 직선적인(linear)시간의 개념을 지닌 말이다. 이에 비해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chance/moment/opportunity)를 나타내는 것

해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카이로스적 사람은 '그때 그 사실'보다도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선택한다. 그 정신이 곧 진실이며 구원의 수월지가 된다. 지금이 곧 과거이며 미래이기에 매 순간이 절실하고 푸르다.

그리스도인은 카이로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 크로노스를 과감히 투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충음을 아끼는 자이다. 주의 뜻이 분별하는 자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이다(엡5:15-18).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여겨 의미 있는 시간을 창출해 내는 자이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승화시켜 사용하면 그는 스스로의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존재감을 얻게 된다.

맺음 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무심코 살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된다. 세월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처럼 살아야 사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지만 삶의 가치로 따져볼 때 결과는 천대만상이다.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질적인 카이로스적 창출에 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와는 달리 카이로스는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으며 상생하는 영원의 시간이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사건에 카이로스적 접근을 통해 제 생명의 의미를 펼쳐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와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다. 비록 3년의 짧은 공생애였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카이로스적 삶이 없는 인생은 무상하며 주름살만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냉엄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적 인생을 살 것인가? 이는 각자의 몫이다.

jsong007@hanmail.net

전 네팔선교사 이훈우 목사와 이아희 사모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오픈한 JC Academy

아직도 네팔 선교사란 다투어 붙어있는 이헨리(훈우) 목사와 이올리비아(아희) 사모가 3944 Wilshire Blvd, LA 소재 에프터스쿨을 인수해 JC academy로 새롭게 오픈했다.

남달리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컸던 이 목사 부부는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곳에서도 에프터스쿨을 운영하며 어린이들을 돌봐왔다.

이 목사 부부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온 것은 지난 6월, 이곳에 돌아와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지인이 운영해오던 학원과 연결됐고, 이로 이 목사 부부는 학원사역에 대한 꿈이 솟아나 기도 끝에 이 학원을 인수하고 이름을 JC(예수님의 아이들) 아카데미로 개명해 새롭게 오픈했다.

본 학원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서 중심가에 아담한 2층 건물, 총 10개의 교실로 되어 있는 JC는 현재 킨더가튼부터 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생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학교공부와 숙제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음악, 영어(월어인 영어), 미술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는 중국어 교실도 새롭게 개설할 계획이다. 강사는 이올리비아(아희) 사모.

이올리비아(아희) 사모는 중국 장충 중의학대학에서 침술과 한의를 전공하고 천진 병원에서 임상진료를 해왔던 한의사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킹스턴 한의과대학 교수로 한의학의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김 사모의 학원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관리도 남다르다.

이훈우 목사가 학원을 열게 된 동기를 들려준다.

"네팔 선교사역을 마친 후 아르헨티나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다 지난 6월



JC Academy 오픈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이훈우 목사 부부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교회보다 이곳(JC)으로 길을 열어주셨다. 물론 의식주의 문제도 있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로 시작했다. 이곳에 등록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정기적으로 네팔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선은 이곳 어린이들이 밝고 율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다. 이곳 아이들도 문화가 오픈된 아이들 속에서 상대적 빈곤이 있다. 어린이들의 학업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곳 선생님들도 대부분이 크리스천들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돕고 양육하고 있으며 상담사역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 자녀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

JC아카데미에서는 현재 3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훈우 목사에게 "많은 어린이가 등록하는 게 좋겠지요?"라고 기자가 묻자, 의외의 답변이다. "50명을 정원으로 더 이상은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선 최대한 5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이곳 학생들 수에 비례해서 놓고 온 네팔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전하며 그곳 선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목사 부부는 "기도로 저희에게 새로운 사역이 주어졌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이 사역을 이뤄가겠다"고 힘 있게 말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학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251-9933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크로노스는 객관적이며 년대기 적 시간 개념이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이며 의미가 부여된 신앙적 개념이다. 사명인은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질적인 카이로스 승화시킨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 해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비결은 시간의 실체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다. 새 날들은 아직도 적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 가야 한다. 승리의 비결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크로노스

크로노스(Χρόνος: Chronos)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통 형태가 따로 없는 무형의 신이나 형태가 있는 경우 긴 수염을 가진 늙은 현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크로노스는 영어의 '크로니컬(chronicle: 연대기)', '크로날러지(chronology: 연대학)' 등 시간과 관계있는 단어들의 어원이 바로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다.

크로노스란 물리적 시간이다. 객관적 시간이다. 연대기적 시간이다. 자연적 시간이다. 이는

는 그리스어로 '기회 (찬스)'를 의미하는 Kairos를 신격화한 남성 신이다. 원래는 '새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 유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보면 카이로스의 모습은 앞머리는 길게 기르고 뒷머리는 맨들맨들한 대머리인데다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그 이유는 앞머리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카이로스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카이로스 의미는 기회의 시간이다. 주관적 시간이다.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신속히 지나간다.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 인생은 어차피 기회의 연속이다. 여기 3종류 인생이 있다. 첫째는 카이로스적 기회가 오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매하게 사는 경우이다. 둘째는 그 순간을 알게 되나 망설임이 놓

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수직적(vertical)인 의미를 지닌다.

세계 속의 시간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얽매어서 시간에 끌려가는 삶의 방식이 크로노스라면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체험을 하게 되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방식이 카이로스라 할 수 있다.

크리스천의 삶의 지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부조리와 모순, 불의와 전쟁, 가난과 억압 등을 경험한다. 크로노스의 사람은 역사의 판단에 무심하다.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그때 일어난' 교과서적인 사실에만 집착한다. 자본과 시류를 좇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른다. 가장 원래적인 카이로스적 생명성이 소멸되고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고 있음이다.

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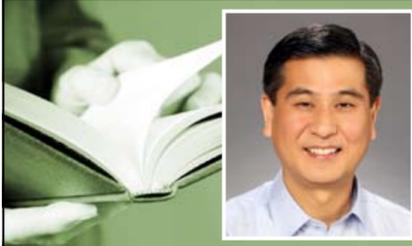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5)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 (6) - 교회에 대해 알자

근래에 한국의 개척교회가 3년 안에 문을 닫는 확률이 90%라는 보고서를 접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많은 교단과 이에 속한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곧 복음의 확산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교인들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되는 상황 가운데서, 수평이동이나 교회의 분열은 도리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더하게 할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진지한 성경적 고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론은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다.

질문: 교회는 어떤 곳인지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교회의 분리

사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함께 성장하였다. 복음이 전달된 이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각 개인 또는 지역이 지닌 종교성이나 사상을 버리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 성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잣대에 나름의 생각과 이론을 제한 받음으로, 더욱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물론 교회의 전통도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세워졌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지녔던 다양한 갈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법 컸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진리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 지붕 아래 살아가던 성도들의 다른 주장들이 결국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반복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잘 이겨내고 종교의 자유를 얻은 후,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상이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며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던 중에 분파주의자들이 의하여 두 교회로 분명하게 갈라진 것이다. 나름대로 세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한

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힘을 합쳤던 것이다. 이 운동을 지도한 인물은 도나투스(Donatus) 감독이었으며,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지속되던 그의 사상을 따르던 자들을 도나투스파(Donatist)라고 부른다.

강경파 도나티스트들로 인해 초대교회 이후 분열...교회내 가라지 인정 못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 완전한 가시적 교회 없어...성품과 삶의 열매 점검

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힘을 합쳤던 것이다. 이 운동을 지도한 인물은 도나투스(Donatus) 감독이었으며,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지속되던 그의 사상을 따르던 자들을 도나투스파(Donatist)라고 부른다.

도나티스트들은 박해 때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변절자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들을 색출하는데 힘을 썼는데,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지녔던 독특한 교회관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 교회는 오직 가시적인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밖에 없다. 자신들만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도나티스트들의 주장은 무엇을 암시하였는가? 기존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것이다.

■ 교회의 일치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분열의 길을 걸어갔던 도나티스트들의 영향은 어거스틴의

사역이었던 북아프리카의 히포에도 미쳤다. 391년,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히포는 두 교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사역이 시작하는 시기에는 같은 도시에 자리 잡은 두 교회 사이의 대립이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었다. 교회의 분열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하여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 그로 하여금 도나티스트에 대항하는 다양한 글을 작성하도록 만

하게 되었다. 세상의 종말이 되면 ‘참된 교회’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도나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일치보다 순결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상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일치된 모임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거스틴이 히포에서 활동하던 초기에 도나티스트 사제였던 막시미누스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말을 들었다. 어거스틴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직접 편지를 썼다. 그는 “그들의 전혀 다른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어거스틴의 편지”, 23.5) 그 당시 어거스틴이 매우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관심이 신학적 논쟁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도나티스트들의 잘못된 교회관은 교회는 물론, 성도 사이의 관계 나아가서 가족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선포하신 성도간의 평화와 사랑이 소멸되고 있는 상태를 무척 아파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역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진정 ‘참된 교회’를 찾아온 것이다.

■ 참된 교회의 세례
도나티스트들이 박해 기간 동안 배교하였던 자들을 정죄하면서,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그들의 거룩함의 상실과 이에 따르는 영향이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실천적이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직자가 베푸는 세례는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아울러 성도가 교회로 되돌아오려면 반드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단호하였다. 성례의 유효성은 이를 베푸는 성직자의 거룩함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해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서의 거룩함의 근원은, 결코 인간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이다. 이는 도나티스트가 문제를 삼았던 세례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였다. 세례의 타당성 여부는 오직 교회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한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어거스틴이 400년경에 작성한 “세례에 관하여: 도나티스트들에 반대하여”라는 소책자에 그의 사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4:23-30; 로마서 12:4-5; 고린도 전서 12:12-13, 27; 에베소서 1:7-13, 22-23; 골로새서 1:15-20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남기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교회는 결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 기관이다.

현재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이다. 죄인과 의인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또는 구원받을 자와 받은 자가 함께 어울리는 곳이다. 결코 완전하지 않다. 만일 스스로 완전히 거룩한 모습을 취하려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하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 물론 결로속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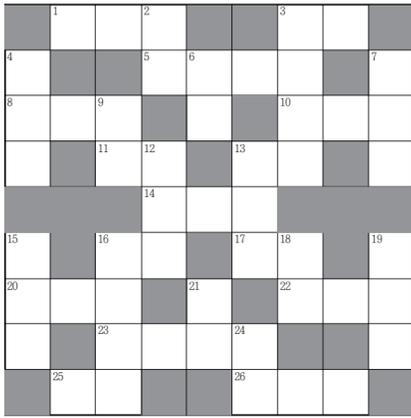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아직 부패한 모습을 지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직분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 자신이 ‘가시적인 교회’,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을 받은 자에 속하여 있는지, 성품과 삶의 열매를 점검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주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한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고백 드린다.

covenantcho@yahoo.com (글)

십자말 • Cross Word (150)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저녁식사를 일컫음.
3.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마11:1).
5.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뜻.
8. 율법을 잘 아는 선비(단3:2).
10. 다윗의 용사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의 고향(삼하23:20).
11.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부정한 새 이름(레11:18).
13. 메시아(눅1:47).
14. 바울이 3차 전도시에 동행한 사람(행20:4).
16. 아브라함이 일시 살던 곳(창11:28).
17. 그릇, 기물(민4:12).
20. 야합의 아들(대상4:2).
22. 레위인 가족의 조상(대상24:20).
23. 죽고 사는 것을 막론하고(삼하15:21).
25. 밭을 쓰기에 적당한 땅(수15:48).
26.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한다면 ○○○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마5:47).

<세로 푸는 열쇠>

2. 떡을 찬미하며 말하며 기림(시119:12).
3. 온 몸의 감동과 투구(엡6:11).
4. 율법을 기록한 책(신31:26).
6. 예수 믿고 ○○ 받아라(행11:14).
7. 구약의 29번째 책.
9. 신주를 모셔놓은 집(왕상16:32).
12. 예수의 족보 중의 한 사람이다(마1:13).
13. 파리의 변태기(엡7:5).
15. 다리 무릎마디 아랫마디의 뒤쪽(단2:33).
16. 어리석고 몽매하여 지혜가 없음(신32:6).
18. 이름이 높은 평판(신26:19).
19.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이며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다(느12:10).
21. 모든 일(사19:14).
24. 아들을 낳음(렘20:15).

십자말 정답(15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회: 오후 8: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영): 오전 7:00 주일 2부예배(영): 오전 8:15 주일 3부예배(영):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벤넬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월-토) / 오전 11:00(일)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어 예배: 오전 10:45 중, 고등학생: 오전 10:4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00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새 계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4)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7)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



지난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 먼저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또한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악영향의 하나로도 여겨지며,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Corruption)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종이 자신들의 인종이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여러 삶의 영역과 측면에서 차별을 가하는 의식과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이 행해지는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분명

고 그 존엄성이 명백히 인정된(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수많은 희생과 눈물로 쟁취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는지도 마음 아프고 억울하며, 지금도 미국의 백인들은 여전히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인간 이하로 여기고 취급해왔던 과거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흑인들을 향해 인종차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평등이 보장되었고,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Segregation”법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백인들은 자신들이 흑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라 여기며 그들 눈에 하등한 존재인 흑인들과 섞이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어 합니다. 요즈음은 눈에 보이는 직설적 방식이 아닌(물론 남부지역에는 아직도 그렇지만), 보다 교묘해진 방식으로, 보다 은밀해진 방식으로 백인들은 흑인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바운더리에 그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차별하는 인종이 사

고자 열망하는 타 인종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백인들이 사회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그와 같은 가치와 메시지를 이 사회에 편만하게 전해왔기 때문이겠지요. 트럼프 당선은 어쩌면 이러한 은밀한 백인우월주의가 다시금 드러나는 백인우월주의의 표현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해온 인종그룹들이 백인들의 방식을 고스란히 학습하여 그대로 서로서로 상호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과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힘과 권력에 의한 의미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종갈등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인 흑인 갈등, 흑인 히스패닉 갈등, 한인 히스패닉 갈등 등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때로 경제적 계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강자가 행하는 ‘인종차별’ 차별당한 인종그룹들이 서로 차별하는 인종갈등으로 확산

하게 보이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차별을 가하는 해당 인종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강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약자인 인종의 사람들이 강자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일단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차별이라는 것을 행사할 힘이 없으며, 설사 무엇인가 비슷한 의식과 행동을 한다고 해도 영향력과 효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가 밭 밟고 살아가는 미국사회와 다른 여러 공동체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인종차별은 결국 해당 사회에서 어느 한 인종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는 천박한 편견과 그 권력이 영원토록 자신들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아집으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차별을 행사해온 인종은 잘 아시듯이 유럽계에서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백인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차별대상은 역시 잘 알려진 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평등한 존재로 확정되

실 흑인들 뿐만은 아닙니다. 미국에 다양한 인종들이 이민, 유학, 취업 등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사람들도,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 사람들도, 그리고 인도 및 중동계 사람들도 모두 백인들이 차별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하다 못해 가장 심하게 억압당하고 말할 땅한 그래서 현재 “Reservation” 지역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 역시 백인들이 차별하는 대상입니다(이 땅에서 차별을 가장 극심하게 경험해 온 인종이 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백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인종들을 열등하게 바라보고 당연히 차별 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여겨왔으며,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갖가지 힘과 권력으로 그러한 차별을 행해 왔으며 또한 정당화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소위 백인우월주의는, 이미 백인들에게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쉽사리 수정되어지기 힘들어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다른 인종들의 소위 “백인화”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흑인 및 다른 인종의 무리들 중에서 자신들과 비슷해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조금 나누어주고 마치 그들도 힘과 권력을 가진 상류층 백인들의 바운더리에 들었다는 듯한 특권의식을 심어주면서, 인종차별을 교묘하게 심화시키는 듯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 바운더리에 들어 주류가 되

차이에 의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백인들 다음쯤은 된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인종들에 대해 묘한 우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행사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백인들의 잘못을 성토하려는 듯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사실의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우리 이야기의 전체적 목적은 한인 기독교교육이 관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아픈, 왜곡되고 불의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에 미워하시는 일, 즉 인종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 비평적 묘사와 그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관여의 가능성과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며,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독교 교육적 관여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들의 시적이 종교적 차별과 박해를 견디기 힘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청교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이야기에서 기독교 교육적 관여에 대해 다룰 때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라(삼하7:11-15)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그 안에 옮기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생각지 않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받은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관계는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를 말합니다. 사울은 버림받고 빼앗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히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삼하7:18-21)

본문 “다윗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21, 27절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놓으시어서 알아듣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내

려주시기 위해서 귀를 열고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사50:4하). 진정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실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수 내 집이 무엇이관대(삼하7:18-21)

다윗이 말씀을 듣고 나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성도님들은 늘 감

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베풀어주시는 은혜도 너무 과분한데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하니 너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함의 기도는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목 주 여호와와 종을 아시오니(삼하7:20)

우리가 매일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의 속사정과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요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고 복을 주시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

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 더욱 솔직하게 내 자신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 주의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삼하7:21-23)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삼하7:24-29)

다윗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 앙고백 속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거듭 거듭 되새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사

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게 하도록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응답되기 원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장로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부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어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1월 27일(금) 오후6시
- 3 입학시험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부흥회 : 2017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본지가 보도한 2016년 한인교계 10대 뉴스

<순위는 보도 날짜 순>

전 세계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2016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본지보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미주 한인교계의 일들을 되짚어 본다. 뉴스는 경중에 관계없이 날짜에 따른 본지보도 순서로 정리했다. [편집자]

1. 미주세이언 한국세이언과 잠정적 결별 (1568호 9면)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진용식 목사, 이하 세이언)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출범 5년째를 맞은 세이언은 잠정폐쇄를 결정하고 오는 2월 15일 개최 예정인 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미주세이언 임원들은 1월 15일 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세이언이 돌로 갈라지게 됐음을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이단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두 날개'가 연관돼 있다고 밝혔으며, 세이언 미주회장 김순관 목사는 "진용식 목사가 '두 날개'라는 특정단체에 대해 옹호 내지는 비호하려는 의도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나 금권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고 건전하게 이단연구 및 대책을 하기로 한 세이언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한국 일부 회원들과의 단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무국장 한선희 목사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공연히 미주 쪽을 겨냥, 모욕적인 비방을 하고 세이언을 폄하하거나 한국내 회원들끼리의 불화로 해외 회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보게 해 이제 더 이상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고, 세이언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에게 '세이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개막(1569호 9면, 1587호 1면, 16면-화보)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인세계선교대회(KWMC)가 아주사 퍼시픽 대학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6일 오후 성대히 막을 올렸다.

그동안 동부 시카고에서 개최해왔던 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서부에서 개최돼 미주 선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회는 1차 때부터 참석해 이 대회를 함께 이끌어온 차현희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존 R. 월러스 박사(아주사퍼시픽대학 총장)가 설교("A City on a Hill")하고 마크레버턴 박사(폴리신학대 총장)와 정운찬 박사(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토마스왕 박사(명예대회장)가 영상으로 축사의 말을 전했다.

첫날 성찬식은 박희민 목사(명예대회장) 집례로 진행됐으며 최연장 은퇴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첫날저녁 선교대회에서는 김종진 (태국), 정훈채 (미얀마), 박수영(태국) 선교사들의 선교보고가 있었으며 둘째 날 낮 시간에는 전세계 권역별 선교포럼과 선교사와의 만남의 광장이 이어졌다.

둘째 날 저녁집회 설교는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셋째 날은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넷째 날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맡았으며 마지막 날인 10일 폐회예배는 선언문 채택과 함께 선교의 열정을 품은 이들을 위한 파송예배로 드린 후 대담원의 막을 내렸다.

3. PCUSA 동성애정책대응 새모델 '복음주의 연합'(1575호 10면)

미국장로교(PCUSA)의 동성애 정책에 반발하는 한인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틀란타노회에 소속된 10여개 한인교회들이 지난 2월 29일 아틀란타연립장로교회에서 '복음주의연합'을 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13일 출범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단체는 준노회 형태로 노회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체를 허락받은 것은 미국장로교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복음주의 연합'은 △개교회 모든 목회 사역과 목회자들의 이동을 관장할 수 있는 자치성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신학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 △선교와 교회 개척의 주도성 △목회자 후보생 안수와 시험 등의 독립성 등을 지니고 있다.

한편 PCUSA교단 내 한인교회들의 탈퇴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의 탈퇴가 지난 12월 6일 동부한미노회 제80차 정기노회에서 부결됐다. 필그림교회 측은 주말 긴급 당회를 열고 문제대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상회 기관 동북대회에 호소하고자 청원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1614호 9면).

4. PCA 한인서남노회, 오정현 목사 안수사실 확인(1577호 11면)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에 대한 목사

안수의혹과 공방 속에서 PCA 한인서남노회는 "1986년 10월 14일 강도사 오정현에게 목사안수를 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제 66회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고건주 목사) 정기노회는 오 목사의 목사안수는 지난 1986년 열린 제7회 노회 회의록에 명시돼있는 대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목사안수를 하기까지의 과정상에 드러난 교단헌법(BCO)에 저촉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노회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교단 법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시 PCA 서남노회는 오 목사가 CRC(북미개혁교단)에서 거쳤다는 강도사 활동을 인정, 목사안수를 인허했다. 하지만 CRC에는 '강도사' 규정이 없다. 오 목사에게 있던 '설교권'은 목사가 공석일 때 교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CRC 헌법43조)으로, 이는 목사 안수에 필요한 강도사 규정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강도사사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5. AZUSA NOW 다민족 기도대회(1579호 1면)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미국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10만 기도의 합성이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 울려 퍼졌다. 지난 4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열린 아주사나우(Azusa Now) 참석자들은 인종과 민족,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한마음으로 LA와 캘리포니아,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간구했다.

미국 중보기도단체인 더콜(The Call)이 주최한 아주사나우 다민족기도대회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용사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주최측은 다민족의 연합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 민족 그룹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인, 유대계 크리스천, 라티노 등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했다.

한인들의 경우, 루잉글 목사가 직접 한인교회를 향해 "기도의 문을 열어 달라" 부탁하며 행사 첫 시간을 배정한 바 있다. 이 모든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최대 2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이 영상물도 언어마다 별도 채널을 통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6.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1592호 11면)

지난 4월 당회 의결

김경진 목사의 면직 결정으로 남가주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KPCA 총회는 지난 5월 5일과 6일 양일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나성영락교회 재판에서 담임목사인 김경진 목사를 면직하고, 지난 4월 24일 열린 당회에서 김 목사 불신임안을 주도한 두 장로에게 각 1년, 6개월의 시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당회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2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4월 24일 열린 당회의 8시간의 녹음과일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김경진 목사 불신임 논의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측은 이러한 과정들이 '장로교의 정치원리'를 깨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김 목사의 면직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7. 무더위 속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1593호 1면, 10면)

7월의 뉴욕 날씨가 무더위 속에서 3일간 치러진 할



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담임)는 성결교단 소속으로 정진경 목사 이후 성결교 목사로는 두 번째로 초청됐다. 따라서 뉴욕의 성결교 소속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뉴욕교회협회장 이종명 목사는 첫날 대회사에서 37년의 역사를 가진 할렐루야 뉴욕대회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은 세속화, 인본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동성결혼, 윤리성 상실, 이단 사이비 난무하는 혼탁한 시기"라며 "이러한 비전리, 불합리를 철저히 타파하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뉴욕 도성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결쳐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팔연 목사는 첫날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오"(창12:1-12), 둘째 날 "선민이여! 꿈을 가집시다"(창37:5-11), 셋째 날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딤후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사 원팔연 목사는 대회를 마치고 18일 오전 10시 30분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했다.

8. 캘리포니아주 기독교대학 정체성 지지자!(1594호 9면)

캘리포니아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SB1146법안 통과에 대한 대책 강구 모임이 7월 25일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모임은 APU수석부총장인 데이비드 빅스비 박사와 총장특별자문위원 박성민 박사, 그리고 윌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 박희민 목사,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장 엄구서 목사, OC교회회장 민승기 목사와 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 등 교계단체장들이 참석했다.

SB1146법안은 기독교대학에서성경과목, 공적모임에서 기도폐지, 체벌의무와 폐지 외에 친동성애 법안까지 포함돼있다.

9. 절반의 성과 2016 다민족기도대회(1607호 9면)

2016 다민족 기도대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Heal OurLand!'라는 주제로 10월 23일 오후 5시 애틀랜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 으로 열여온 다민족 기도대회는 특별히 대선 등 미국의 영적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대비해 마련됐다.

하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 열려서인지 타인종 참여가 저조했으며 한인들의 참여도 작년엔 비해 뒷걸음질 친 느낌을 줬다.

10. 미주에서도 울려 퍼진 대통령 퇴진의 함성(1610호 9면, 1613호 9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재외동포 행동'이 11월 11일 오후 6시부터 LA총영사관 앞에 모여 '국정농단, 국민기만,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엔 50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2주일 후인 26일과 12월3일에 오후 4시30분부터 한인타운 월셔 블러 버드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광장에서 400여명이 모여 '박근혜 탄핵, 구속'을 외쳤다.

이날 집회는 종교계 인사들은 물론, 노인부터 어린이들, 외국인들까지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박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그룹의 한 목회자는 "오늘 침묵하면 내일의 조국과 하나님의 교회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되기에 참석하게됐다"며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이 하 관원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음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리: 편집부)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학비, 다양한 학교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SA) 100% 온라인 수강으로도 졸업 가능 HD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순서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2017년도 봄학기 등록 시작: 2017년 1월 3일 봄학기 수업시작: 2017년 1월 30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